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일일보

“최고” GREENWAY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007호

Wednesday, May 1, 2024 A

## 링컨처럼... 한국전 영웅에 첫 '명예의 안장'

고 퍼켓 대령, 의사당 조문 안치  
여야 지도부·국방장관 등 대거 참석  
“울은 일 위해 헌신, 존경의 본보기”

한국과 미국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6·25 참전용사 랭프 퍼켓 주니어(97) 육군 예비역 대령의 조문행사가 지난달 29일연방의회에서 열렸다. 지난달 8일 작고한 고 퍼켓 대령의 마지막 길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1926년생인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평안북도 소재 205고지 진지를 중공군의 공격에 맞서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 공로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퍼켓 대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고,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서는 그의 유품을 직접 맡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조문행사에서 한국계인 육군 군악대 소속 에스더 강 하사가 추모곡을 부르고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5월 한국전 참전 영웅인 랭프 퍼켓 주니어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모습. [C-SPAN 캡처]

추모사에서 “퍼켓 대령의 모토는 ‘추운 날씨, 비가 오는 날씨, 누군가 당신에게 총을 쏘는 등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 있으라(Be there)’였다”며 “6·25 참전 용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울은 일을 했으며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열망해야 할 본보기”라고 말했다.

미치 매키넬(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5고지 전투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10대 1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며 “퍼켓 대령은 병사들을 명예롭게 이끌기 위한 힘과 결의,

용기를 기도했을 것이며 그기도는 이뤄졌다”고 추모했다.

이날 행사는 의사당 2층 중앙의 원형 홀인 로툰다에서 ‘명예 안장(Lying in Honor)’ 형식으로 진행됐다. 로툰다홀은 ‘의사당의 심장’이라 일컫는 곳으로,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의원 및 군 지도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사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유해를 안치해 조문을 받는 장소로 쓰인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등의 유해가 이곳에서 조문을 받았다. 6·25 참전용사 가운데 이곳에

서 조문행사가 거행된 것은 고인이 유일하다.

이날 행사에선 서울 출생으로 네 살 때 미국에 이민 온 한국계 군인 에스더 강 하사가 추모곡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미 육군 군악대 소속인 강 하사는 군악대 연주에 맞춰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In the Garden)’을 불렀다. 강 하사는 “추모식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했다”며 “이날 (한국계로서 6·25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기사 3면 김민정 기자



### “29일 최고기온 91도”

#### 워싱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록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기상 관측소에서 지난 4월29일(월) 오후 한때 수은주가 화씨 91도까지 올라가 동일일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덜레스 국제공항의 기존 최고기록은 2018년 4월 29일의 89도였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BWI 공항에서도 91도를 기록해 최근 50년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BWI 공항에서는 1974년 4월29일 92도를 기록



한 적이 있다. 레이건 공항은 89도를 기록해 1974년 같은 날 91도에 이어 두번째 기록을 세웠다.

연방기상청(NWS)은 봄철 대기권 불안정에 의해 잦은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더위는 남쪽 바닷가 수온 급상승으로 인한 대기권 연쇄 충돌 현상이 워싱턴 지역 뿐만 아니라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면서 토네이도와 폭염 등의 현상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지역 5월 날씨도 변동성이 강한 가운데 대체로 예년 기온을 1-3도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옥채 기자

### 트럼프 “한국은 부국”

#### 주한미군 철수가능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11월 대선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

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 2면 ‘트럼프’ 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피  
순금 아기 물반지모집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www.opendoorpc.org

# 2024 열린문장로교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 International Festival

5월 18일(토) 8am-4pm

열린문장로교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준비되며 자녀들을 대상으로 열린문 아트컨테스트가 열립니다.

**K-POP 가수 한희준 미니 콘서트**

Moving Forward Together!

야외공연 / 물품판매 / 악세서리 / 야드세일  
아트컨테스트 / 무료진료 / 키즈 코너 / 식사와 음료

장학금 내역	심사위원 특별상 (\$500 (전체 1명))	Pre K~K / 1~4학년 / 5~8학년 (금상 \$300, 은상 \$200 (각 그룹당 1명), 동상 \$100)	9~12학년 (금상 \$500, 은상 \$300, 동상 \$200)
--------	--------------------------	---	---------------------------------------

문의 | artcontest@opendoorpc.org  
심사 |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 회원 \*제출된 그림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최 | 열린문 장로교회

주최처에서 제공한 도화지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미술도구 및 개인 물품은 각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추천 준비물: 미술도구 일체, 도화지 받침대)

# 용산 “민주당, 차담서 총리후보 거론 안해” 사전협의 없을 듯

“대통령, 생각 정리중” 인선 본격화  
내주 용산개편, 민정기능 부활 유력  
수석 김주현·이금로·한찬식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곧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총리 인선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야당과 사전 협의 후 발표하는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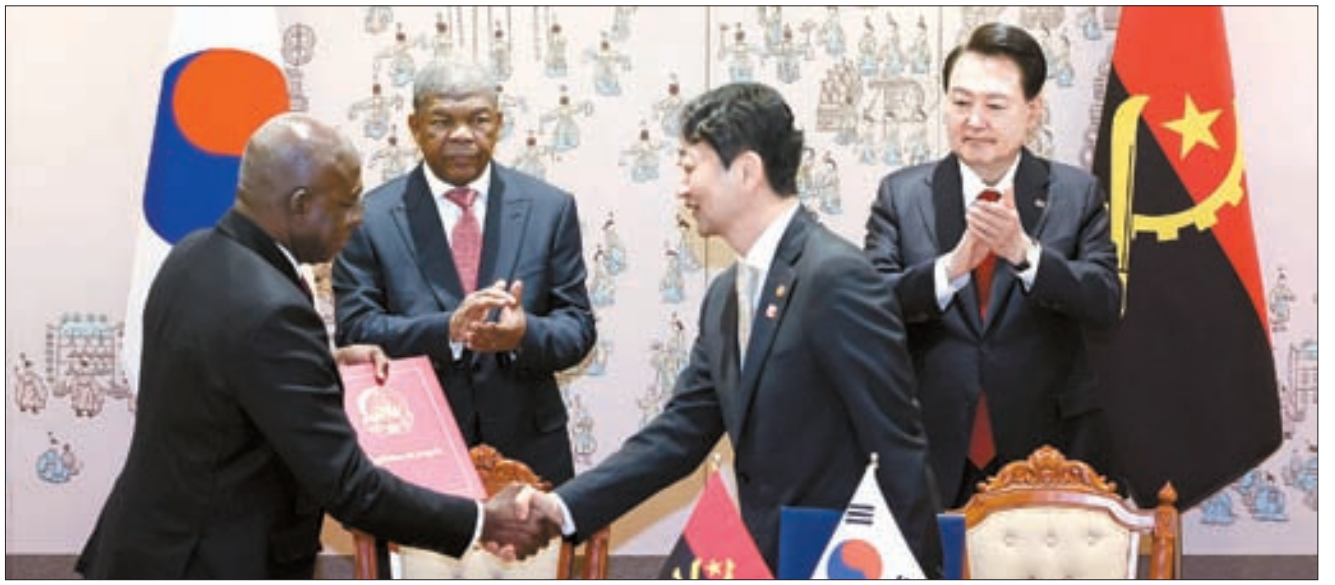
당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차담에서 협치 카드로 총리 인선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았다. 이도은 후보 수석은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야당이 후임 국무총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며 “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 좀 부담스러웠던 건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 임명은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뤄지기 어렵다.

새 총리 후보로는 정치권 출신의 정부형 인사들이 주로 언급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영선 전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호영·권영세 의원,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정현 전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에선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도 새롭게 후보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중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수석을 인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부 되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정 기능은 빠지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신설되는 조직의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차담에서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 정보·정책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임 수석으로는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이금로·한찬식·권익환 전 검사장도 함께 언급된다. 모두 검찰 간부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민정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앙골라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앙골라 국가원수가 방한한 것은 1992년 앙국 수교 이후 처음이다. 왼쪽부터 앙골라 테트 안토니우 외교장관, 로렌수 대통령,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수석실 폐지를 뒤엎는 것도 부담인데, 새 수석으로 김사 출신 인사가 오면 여론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인 시민사회수석도 곧 인선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신지호 전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후보수석은 이 수석이 유망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외에 사의를 표한 나머지 참모들의 사표는 반려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내 책상 안에 있으면 반려지, 굳이 반려해야 하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4·10 총선 다음날 한 총리와 용산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은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

자회견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한 열의가 상당하다”며 “참모들은 ‘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할까’ 같은 실무적인 논의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 ‘이재명 5400자 청구서’대로...야당 입법 강행 예고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김진표엔 내일 본회의 개최 압박

“차담은 끝났다. 이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5월 임시국회 입법 강공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 앞

에서 읽은 ‘5400자 청구서’를 향후 민주당의 행보를 가늠할 방향타로 보고 있다.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사안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박주민(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의원 등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 문해 수사 촉구서를 접수시키는 등 무

력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국회에선 민주당 남인순, 새진보연합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도 전면에서 내세웠다. 수조원대 재정부담에다 악성 임대

인 채무까지도 국가가 갚아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법안이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도 일부 내용만 바뀌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는, 5월 2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

주당 의원들은 30일 단체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도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하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야당이 적어도 대화 채널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협치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 ▶ 1면 ‘트럼프’에서 이어집니다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

박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라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날씨 (°F)**

2일(목)	87-63	5일(일)	66-60
3일(금)	77-56	6일(월)	76-63
4일(토)	63-56	7일(화)	83-66

5월 1일(수) 83~6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케어피플 홈헬스**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5/6 - 5/10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b>Centreville (Main Office)</b>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b>Annandale (사랑방)</b>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b>Annandale (V)</b>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b>Richmond</b>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b>Gaithersburg (MD)</b>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 “소셜 카드 코팅 하면 안돼요”

보안장치 훼손, 유효성 인정 못받아

한인 등 이민자들 중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보호할 목적으로 비닐 코팅(lamination)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연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코팅하는 것은 카드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면서 “카드에 숨어있는 각종 보안장치가 코팅으로 인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SSA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장착식 보호장치 사용이 안전하며 비닐 코팅과 같이 카드와 분리되지 않고 훼손시킬 수 있는 장치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SSA는 아예 비닐 코팅된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비닐 코팅을 한 상태라면 이를 반납하



고 시급하게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단순한 재질의 종이로 보이지만, 뒷면에는 위조방지 코드가 상당히 많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특수잉크인 빨간색 형광물질로 인쇄돼 있는데 빛에 따라 색깔이 달리 보이도록 설계돼 있다. 육안 식별이 어렵지만 음각 인쇄 방식이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다. 이를 확대해서 볼 경우 소셜 시큐리티라는 글씨가 보인다. 또한 특정 각도에서만 볼 수 있는 얼굴 이미지도 있다.

노란색, 핑크색, 파란색 작은 디스크

조각이 앞뒤면에 임의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복사할 경우 복사본임을 확인시켜주는 패턴을 숨기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분실과 훼손을 우려해 백신접종카드를 코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인 등 이민자들 중 소셜 시큐리티 카드의 지갑 휴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백신 접종 카드와 같이 코팅을 하는 이들도 늘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상시적으로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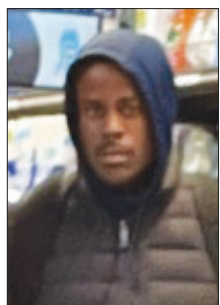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신분증이 아니며 신분증 대용으로 요구하는 곳도 없다. 당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행위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 없이 번호 유출 만으로도 심각한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 퍼켓 대령 헌정식 참여** 지난 29일, 한국전쟁참전추모재단이 주최한 6·25 참전 미 육군 출신 장교 랄프 퍼켓(Ralph Puckett Jr.) 대령의 헌정식이 한국전쟁참전기념비 앞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 회원들이 참석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랄프 대령은 한국 전쟁 동안 제8 육군 레인저 중대를 이끈 바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명예 훈장 수상자였다.

김윤미 기자

## 동일 매장 36회 절도, 7천달러 상당 피해



MD 몽고메리 카운티 체비 체이스

한 흑인 남성(사진)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체비 체이스의 한 그로서리 스토어를 6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용의자가 타겟으로 삼은 매장은 위스콘신 애

비뉴에 위치한 아마존 프레쉬로, 모두 7천달러 정도의 물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당국은 “용의자가 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담은 후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절도 범죄는 4월18일까지 이어졌다. 당국에서는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1-866-411-8477)를 할 경우 250달러에서 1만달러 사이의 현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 “과학과 일상의 융합이 세상을 혁신하는 방법”

옴니화재 주최 청소년 세미나 오는 4일 ‘타이슨스 보로’ 개최

‘과학이 일상과 만나면 어떤 혁신이 이뤄질까?’라는 매혹적인 주제의 세미나가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옴니화재(대표 강고은)가 국립보건연구원(NIH) 지영미 박사를 초청해 마련한 콘서트 세미나는 오는 4일(토) 오후 6시부터 ‘타이슨스 보로’ 클럽룸

에서 열린다. 강대표는 “현미경 너머 생물학의 세계를 흥미진진하게 강연하고, 다양한 진로선택을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옴니화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차세대들의 꿈을 키우는 콘서트 시리즈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강고은 대표

지영미 박사

세미나는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이메일(Shegohealing@gmail.com)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소: 8305 Greensboro Dr. Tysons, VA 박세용 기자

## 한인 부부, 서울대 동창회에 100만불 기부

미시간 거주 고광국·국화씨 2~3세 장학기금으로 쾌척



고광국(오른쪽), 국화씨 부부. [국화씨 제공]

한인 2~3세대의 학비 지원을 위해 1세 한인 부부가 100만 달러의 거액을 쾌척했다.

주인공은 서울대 공대 동문 부부인 고광국(90), 국화씨(88)씨로, 이들은 최근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100만 달러 장학금 기부 약정을 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따르면 그동안 모교인 서울대에 장학기금을 만든 미주 동문은 있었지만, 미주 한인 학생들을 위해 이처럼 거액의 장학기금을 낸 건 사상 처음이다.

고씨 부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만 달러씩 전달한 후 2026년부터 4년간 연간 20만 달러씩 지급한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고씨 부부의 이름을 딴 ‘고광국·국화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스칼라십’을 설치해 매년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씨 부부는 29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미주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기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무쪼록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씨 부부는 세계적인 자동차 유출유 및 특수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크라이센 인더스트리’ 창업자로, 현재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에 수용성 오일인 절삭유와 쿨런트 등을 납품하고 있다.

한편 고씨 부부는 지난 2021년 부인 고씨가 박사 학위를 받은 아이오와대에 100만 달러, 지역 연합감리교회에 40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앞서 2008년에도 서울대 공대에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장연화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맥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DAVID MARKS

데이빗 맥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Client Satisfaction 201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맥스**

Martindale-Hubbell  
Super Lawyers  
The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LA 살기 힘들네”... “마약하고, 벗고” 공포의 지하철

## 현장르포

### 한인 시니어들과 동행 승차 승강장 적막에 긴장... 악취 차량 분리돼 이동 못해 불안 유일한 대비책은 '호루라기'

지난 22일 한 과한이 B라인 유니버설/스튜디오시티역에 정차하던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한 여성의 목을 칼로 찔렀다. 이 뿐만 아니다. LA지역 대중교통의 잇따른 강력 범죄 발생으로 급기야 메트로 이사회는 지난 25일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토록 위험이 만연해도 차량 운전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들은 한인 마켓, 병원, 교회 등을 가기 위해 어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그들은 메트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지난 26일 본지는 메트로를 자주 이용하는 클라라 이(78)씨와 대중교통을 거의 처음 이용하는 김윤자(81)씨 등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해봤다. 지하철 안은 소리 없는 무법지대였다.

26일 오후 1시 20분, 앤젤레스 플라자 시니어 아파트 앞이다. LA에서 한인 시니어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김윤자씨와 클라라 이씨는 다운타운 퍼싱스퀘어역에서 주로 지하철을 탄다.

아파트 앞에서 퍼싱스퀘어역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다. 이동 중 이씨가 갑

자기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트롤리가 있는 '앤젤레스 플라이트' 출입구로 가자고 했다. 이유를 물었다. 이씨는 "역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출입구보다 이곳으로 가야 노숙자도 없고 깨끗하다"고 답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안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셈이다. 이날 행선지는 웨스트역이다. 한인마켓을 가기 위해서다. 병원에 가려면 D라인 지하철을 타고 놀먼디역에서 내리곤 한다.

지하철을 처음 이용하는 김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다"고 말하자 이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씨는 "춥고 비가 오면 노숙자들이 역 안으로 들어와 먹고 자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진다"며 "그나마 깨끗해져서 이 정도"라고 덧붙인다. 깨끗하게 만나 싫다. 지하로 향할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는 더 진동했다.



김윤자(왼쪽)씨와 클라라 이씨가 퍼싱스퀘어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인타운으로 향하고 있다. 뒤에 앉은 남성이 뾰족한 공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이씨와 김씨는 자리를 옮겼다.



한 남성이 지하철 의자에 앉아 가슴에 주사를 놓고 있다(왼쪽 사진). 온 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상의를 벗고 앉아 있다. 이 남성은 자전거를 끌고 객차로 들어와 자전거를 객차 바닥에 내팽거렸다.



이씨와 김씨는 본인 앞에 선 열차가 아닌 다른 칸에 몸을 넣었다. 이씨는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오면 칸 안에 사람부터 본다"며 "열차에 탈 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이는 칸에 탄다"고 말했다. 이씨의 말처럼 지하철은 첫 탑승이 중요해 보였다. 지하철 칸들이 연결돼있는 한국과 달리 LA 메트로 지하철은 각 칸이 분리돼 있었다. 만약 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칸 이동이 불가능하다.

역안으로 들어가니 메트로 직원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비상사태를 선포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천장을 봤다. 달랑 CCTV는 4개 뿐이다. 이씨는 "D 라인의 종점이 한인타운인 웨스트역인데 거기도 메트로 직원이 잘 안 보이고 열차 안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조차 없다"고 말했다.

대낮에 다운타운 중심 역인데도 승강장에는 사람이 고작 열댓 명 정도다. 적막이 흘렀다. 갑자기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위협을 끼치면 적절한 대처가 취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마침 그때 상의를 벗은 한 타인종 남성이 작은 유리 파이프를 들고 나타났다. 약에 취해있는지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그런 그를 보자 생긴 두 여성 시니어의 얼굴이 무표정으로 변했다.

이씨와 김씨는 본인 앞에 선 열차가 아닌 다른 칸에 몸을 넣었다. 이씨는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오면 칸 안에 사람부터 본다"며 "열차에 탈 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이는 칸에 탄다"고 말했다. 이씨의 말처럼 지하철은 첫 탑승이 중요해 보였다. 지하철 칸들이 연결돼있는 한국과 달리 LA 메트로 지하철은 각 칸이 분리돼 있었다. 만약 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칸 이동이 불가능하다.

두 시니어는 앉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다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역인 7가/메트로센터역에서 건강한 체격에 얼굴을 문신으로 도배한 타인종 남성이 그들의 뒷자리에 탑승했다.

남성은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렸다. 게다가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해당 남성이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어 보였다. 그의 등장으로 두 시니어는 말이 없어지고 낯빛이 어두워졌다.

지하철은 무법지대 그 자체다. 마약을 투약하는 이도 있다. 앞서 서술한 퍼싱스퀘어역 승강장의 타인종 남성도 같은 칸에 탑승했다. 자신의 가슴팍에 주사를 쏘았다. 그의 손에는 악명 대신 라이터와 돌돌 말린 은박지가 있었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씨는 "이상해 보이는 외국인들처럼 눈을 안 마주치려 하고 열쇠고리에 호루라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며 "의자도 지저분하고 냄새날 때가 많아서 잘 앉지 않는다"고 전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묻자 이씨는 "작년 9월 열차 칸에 타인종 남성 1명, 여성 1명 해서 3명만 있었는데 갑자기 남성이 발똥 일어나서 보니 손에 식칼을 쥐고 있었다"며 "남성이 다가오는데 다행히 나를 지나서 열차 칸 끝으로 가고 나와 다른 타인종 여성은 바로 다음 역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한인 시니어들에게 지하철은 LA시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다. 택시도 있지만 지하철과 버스보다 경제적 부담이 있다. 그렇기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LA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도 LA 메트로 버스과 지하철에 올라탄다.

글=김경준 기자, 사진=김상진 기자



LA한인회와 흑인 커뮤니티 상호 장학금 전달식. 4·29복달 32주년을 맞아 LA한인회와 퍼스트 AME교회 공동으로 흑인 커뮤니티의 학생 6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 커뮤니티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모범적 활동을 펼친 학생 3명을 뽑아 각각 수여했다. 제임스 안(왼쪽 3번째) LA한인회장과 앤 챔피언 쇼 목사가 장학증서를 교환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 한인 판사 또 탄생할 듯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판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24일 가주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앤 황(Anne Hwang, 사진) 판사를 가주 중부 연방지법 판사로 지명했다. 2019년부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일해온 황 판사는



2006년부터 중부 연방지법에서 12년 동안 판사 변호인으로 일해왔다.

황 판사는 코넬대학교(1997년)를 졸업하고 2002년 USC 법대를 마친 뒤 아이텔&멘델라 로펌에서 4년간 일했다.

최인성 기자

### ‘투표 불신’ 공화당원 늘어... 한인 후보들에 불리

〈오렌지카운티〉

당원 55% “지난 대선 불공정” “선거 못믿어 투표 참여 안해” UCI 교수 “공화후보에 직격탄”

소위 '보라색 카운티'로 불리는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 일부 공화당 및 트럼프 지지자들의 투표 기피 현상이 예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원들이자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지지 경향이 뚜렷한 이들은 2020년 트럼프가 패배하지 않았다고 믿거나, 바이든이 이겼더라도 윤리적으로 공화당원들이자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지지 경향이 뚜렷한 이들은 2020년 트럼프가 패배하지 않았다고 믿거나, 바이든이 이겼더라도 윤리적으로

특히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원들 중 55%는 바이든이 공정한 승리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반면 무소속으로 자신을 구분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바이든이 합법적인 당선자라고 봤다.

문제는 이런 불신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UC어바인 사회학과 존 골드 교수는 “대선과는 별개로 주요 공화당원들이 투표장을 찾지 않을 경우 연방하원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OC의 주요 하원 지역구들은 공화당 입장에서 과반 사수를 위해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핵심 지역들”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불신은 지역 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으로도 표출됐다.

대표적인 보수 강세 도시인 헌팅턴 비치의 지난 3월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가주 정부는 이를 '잘못된 방식'이라며 공허하

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시속은 무분별한 우편투표 관행을 막고 이중 투표를 방지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만든 방비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런 과도한 조건들이 투표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45지구, 47지구라고 내다봤다. 현재 45지구는 한인 미셸 스릴 현역이 베트남계 민주당 후보인 데릭 트랜과 결선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47지구에서는 가주 상원의원 출신인 데이브 민 민주당 후보가 지역 강세인 스콧 공화당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구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가주 내 전체적인 반 트럼프 여론에 맞서지 않겠다는 전략이지만 불신에 차 투표를 기피하는 유권자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생긴 셈이다.

최인성 기자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중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음란물 사이트 성인인증 규제 합당”

대법원, 업계 소송 기각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통해 성인임을 증명하게 한 주(州) 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업계 단체인 ‘표현의 자유 연합’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음란물 웹사이트의 이용자 연령 확인법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텍사스 주법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25만달러까지 벌금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이 법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표현·출판의



2022년 4월 연방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켈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 (로이터)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가 정부 기관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연방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연방 판사는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 법은 정부가 사람들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텍사스주 정부는 항소했고, 2심을 심리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령 확인 요건이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 항소심 판결 이후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포른허브’(Pornhub)는 텍사스에서 운영을 중단했다.

업계 측이 상고했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령 확인 등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 이용을 규제하는 법은 미국에서 텍사스뿐 아니라 아칸소,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테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 “가자 상황 진전...구호통로 확대 시급”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기근을 눈앞에 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구호통로를 여는 등 긴급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가자 지구에 구호품 전달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인도주의 지원 요원과 구호 대상자들의 안전 문제”라며 “구호 관련 수송대와 시설, 요원은 물론 구호 대상자들 모두 공격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구호차량 오폭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달 초 인도주의 물품 수송을 위해 남부 아슈도드 항구를 임시로 개방하고 가자지구 북부의 예레즈 교차로 통과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막을 수 있는, 인위적으로 초래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최근 점진적인 진전을 보고 있지만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일이 훨씬 많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24일 가자지구에 대한 식량 수송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6주 이내에 가자지구에서 기근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이 구호 통로를 확대하도록 미국이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참혹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압력을 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미국 국가안보각서, ‘중국의 상수도·전력망 위협’ 새로 담았다

FBI “중국 해커, 운영 네트워크 침투” 주요 인프라 겨냥 사이버공격 우려 바이든 서명... 선제 방어 나설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미국 주요 인프라 보안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NSM)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국가안보각서엔 미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적성 국가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각서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연방 기관에 하달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안보각서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표된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에 관한 대통령 정책 문서를 새롭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국가안보각서는 국토안보부에 사이버·인프라 보안의 국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 위험 관리 계획’을 2년에 한번씩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미 정보 당국은 국가 중요 인프라



사우디, 미국과 방위조약 임박... 이스라엘과 수교나서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미국에 요구한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거의 완성단계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설의 민간 소유자·운영자와 함께 주요 첩보를 수집·생산·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각서는 미정부가 기존에 지정한 16개 중요 인프라 부문을 재확인하고 부문별로 위험 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정부 당국자는 “위기나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적들이 핵심 인프라를 손상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특히 가장 민감한 자산과 시스템에 대한 회복력은 국토방위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보 당국은 미국의 전력망과 상수도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전례 없는 수준이며 유사시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핵심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이

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 국토안보부 소속 사이버·인프라보호국(CISA)은 지난 2월 암호명 ‘볼트 타이푼’으로 알려진 중국 해킹 그룹이 최소 5년간 항공·철도·도로·해상·상수도 등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왔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월 말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에너지·수도·교통·통신 등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정치·군사 목표물만이 아니라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트럼프, 재판증인 비방금지 명령위반”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명령 위반 재판 시엔 수감과 같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9천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부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 명령을 내렸다.

머천 판사는 “법원은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피고인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잘 알고 있고,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



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3주차 재판이 시작된 이날 법정에는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 쓰인 계좌 개설에 관여한 은행원 개리 파로가 증인석에 섰다.

한편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일정 도중인 5월 17일 막내아들 배런(18)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탓에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머천 판사를 공격해왔다.

#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 “이스라엘에 투자 말라” 반전시위 전국 확산

## 대학교 친팔레스타인 시위

전국의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대학가를 휩쓴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지난 주말까지 전국에서 700명 넘는 학생들이 체포됐다.

지난 18일 컬럼비아대에서 100명 이상의 시위 학생이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뉴욕대(NYU)에서는 22일 150명 이상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예일대에서는 수십명의 반전 시위 그룹이 연행됐다. 일부 대학에서는 안전 우려로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동부 지역이 중심이 됐던 시위는 중서부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다.

지난 주말 UCLA에서는 친팔레스타인인과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충돌해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USC는 졸업식이 취소되는 등의 사태를 겪고 있다.

대학교 시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살상을 규탄하고 있다. 이같이 전쟁 반대가 시위의 대전제이지만 이들 학생 시위대는 이스라엘 기업이나 무기·군수물자 제조 기업에 투자한 학교 기금을 회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이들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는 요구다.

‘투자 철회’는 시위대 팻말, 캠퍼스 현수막, 교내 신문 기사, 각종 집회 등에서 주요 구호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주 컬럼비아대 학생 시위대가 외친 구호 “공개하라, 매각하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는 시위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

예일대 시위대도 무기 제조업체로부터 학교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조 캔터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기 제조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도록 학교를 움직여야 한다”며 “이러한 캠페인에 많은 대학이 참가한다면 반전과 평화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텐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은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과 군수산업에 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집단학살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쟁 발생으로 이득을



전국의 대학가에서 반전을 외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이스라엘 기업과 군수 산업체에 대한 투자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테]

얻는 기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지만, 대학만이라도 이런 투자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 이미 투자된 돈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컬럼비아대 시위에 참석했던 또 다른 학생은 “우리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스라엘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개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반전시위에서 학생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 회수를 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색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해 학생들이 남아공화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주장했었다. 당시 예일대는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금 철회를 결정했다. 컬럼비아대도 당시 캠퍼스 내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코카콜라, 포드 자동차, 모빌 오일 등의 회사에 투자한 주식 3900만 달러를 매각하기도 했다. 그 후 다른 학교도 남아공에서 사업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했다.

BDS운동도 한때 대학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BDS는 Boycott(불매), Divestment(투자 중단), Sanctions(제재)의 약자다. 이스라엘에 반대해, 이스라엘 제품 구입이나 교류를 중단하고 투자도 금지하며 국제

“**“이스라엘·군수업계에 투자한 학교 기금 회수, 교류도 단절” 이들 기업 투자는 ‘전쟁 동조’ 보유자산 매각효과 크지 않고 ‘친이 기업’ 구분하기 어려워도 ‘반전론 확산’에 상징적 의미**”

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운동이다.

학생 시위대들의 이 같은 요구에 학교 측은 난처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피터 셀로비 예일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투자 책임 자문위원회가 무기 제조업체로부터의 투자 회수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기증”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셀로비 총장은 학교가 얼마나 이스라엘 관련 기업 등에 투자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고 ‘윤리적 투자’에 대한 대학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MIT도 ‘자율로봇’ 프로젝트를 포함해 이전의 대학 재정 보고서에서 포착된 이스라엘 국방부에 대한 대학의 자금 제공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 학생 퀸 페리안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언급하며 “이는 MIT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인정하고 공동체 모두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코넬대에서도 학생들은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대학의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주 코넬대의 ‘테일리 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관여하는 무기 제조업체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대학은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전쟁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 시위대가 투자 철회를 외치지 만 전문가들은 이런 캠페인이 해당 기업이나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매각 권고를 거부해 왔다.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다. 또한 이는 반유대주의라는 인종적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BDS운동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위플드 헤니스 와튼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기업의 운영방식을 변화시켜 특정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며 “기업 행동에 미치는 대학의 영향력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대학들의 투자금 회수나 기업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UC 총장을 역임한 마크 유도프는 “누가 이스라엘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 사업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의 투자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대학들이 이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해도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매입하면 경영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학마다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대학 기금은 공공기업의 0.1%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친팔레스타인 운동가들은 대학들의 이스라엘 투자 회수 및 군산복합체 투자 반대는 대학이 할 수 있는 확실하고 달성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학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사회로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브라운대 학생 아리엘라 로젠츠바이크는 “이 운동이 대학에서 시작해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니스 교수도 기업에 대한 대학의 재정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도덕적 분노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시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선 에디터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b>\$650,000</b>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b>\$560,000</b>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b>\$730,000</b>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b>\$430,000</b>
---	--	---	--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주인**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주) 이사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 주 1회 휴진 돌입한 날, 서울대병원 교수 “파시즘과 투쟁 시작”

## 서울고법, 의대증원 계획에 첫 제동 “이달 중순께 결정, 최종승인 말아야”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교수들이 예고대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했지만, 우려됐던 진료 대란은 없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열려야 할 외래 세션(오전·오후 진료)이 262개인데 90개 세션이 휴진해 휴진율은 34%”라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 측은 “일괄 휴진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은 없다”고 했고, 용인세브란스 측은 “교수 186명 중 3명이 휴진해 휴진율(1.6%)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관계자는 각각 “휴진한

교수는 1명도 없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은 오는 3일부터 일부 교수가 휴진에 들어가지만, 이들 병원도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지난해 5세 딸이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김현수(41)씨는 “오늘은 다행히 진료를 받았지만, 언제 예약이 취소될지 몰라 불안하다”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료 중단에 나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사들의 자긍심을 짓밟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에

서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 심포지엄에서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와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었으나, 단 두 달 만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파시즘에 빗대는 거친 발언도 나왔다. ‘2024년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과 배경’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퓰리즘과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이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각 대학이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게 로드맵이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 측이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에 대해서도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며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문상혁·남수현·윤지원 기자

## 공무원 21% “공직 보람 못 느껴” 소방직 64%는 “만족”

MZ 공무원 60% “수당·봉급 불만” 한국 공무원 3명 중 1명은 낮은 급여 탓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은 절반 안 됐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지난해 8월 기준)은 122만1746명이며, 설문에는 헌법기관 근무자와 휴직자 등을 뺀 95만610명(85.2%)이 참여했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43.0세)보다 0.8세 젊어졌다. 1946~65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신규 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연령대

별로 40대(30.5%)가 가장 많고 30대(28.7%), 50대 이상(28.4%), 20대 이하(12.4%) 순이다. 평균 재직 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보다 2년 줄었다. 국가직 5급 사무관 중 9급으로 신규 임용된 뒤 승진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23.6년으로 2018년보다 0.8년 단축됐다. 공직에서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은 41.5%,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은 21.3%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64.3%)이었다. 이들 중에선 6.4%만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절반 가량(48.2%)이 봉급·수당 등이 적정

치 못하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이른바 MZ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는 이직으로 연결된다. 이직을 고민하는 비율은 20~30대에서 43%로, 전체 평균(34.3%)보다 높았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도 낮은 급여(51.2%), 과도한 업무(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 중 기혼자 비율은 66.3%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1.81명을 뒀다. 5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육아휴직은 증가세다.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만6399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51.6%다. 5년 전보다 6.1%p 증가했다.

한은화 기자



시흥 교량 공사 중 상판 붕괴 - 7명 부상 30일 오후 4시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다. 이날 소방관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 ‘전청조 공범 무혐의’ 남현희…두 달 만에 올린 근황

전 펜싱 선수 남현희(사진)씨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전 연인 전청조씨의 사기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월 15일 마지막 게시물을 올린 이후 2달 만이다. 남씨는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첫 번째 사진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펜싱화가, 또 다른 사진에는 펜싱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 개의 피규어 담겼다. 남씨는 “펜싱 동작 구사 과정 중 사사 사이 발생하는 9가지 타이밍에 대해 학습 과정을 밟고 있는 NIFA 아이들”이라고 적었다. NIFA는 그가 운영하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 아카데미’의 줄임말이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4일



전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의 전 연인이었던 전씨는 재벌 해외자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 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이에 대해 재수사를 요

청하면서 경찰은 그의 혐의를 다시 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22일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 ‘충무로 상징’ 대한극장, 66년만에 역사 속으로

관객참여형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서울 충무로에서 한국 영화 역사와 함께해 온 대한극장(사진)이 66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는 30일 전자공시를 통해 적자 해소 등을 이유로 극장사업부 연업을 오는 9월 30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극장은 1958년 서울 충무로에서 국내 최대 극장으로 개관했다. 미국 영화사 ‘20세기 폭스’ 설계로 건축됐으며 ‘벤허’(1959), ‘사운드 오브 뮤직’(1969) 등 대작을 주로 상영하면서 충무로의 간판극장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 말 11개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으로 재개관했으나 국내 영화산업이 멀티플렉스 3



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양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을 닫은 대한극장 건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머시브 공연인 ‘슬립 노모어’의 공연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머시브 공연은 객석 경계를 없애거나 넘나들 수 있게 한 관객 참여형 공연을 가리킨다. 이지영 기자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b>시민권 / 영주권</b>		<b>비 이민비자</b>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 종교비자 (R)
- 난민		- 기타 조기 유학상당 및 신분 변경	

www.joylawgroup.comJoy Law Group, PLLC.703-246-9100 | 703-309-1455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부동산 최고의 권위!

#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Hyundai Realty IncorporationTel: 703.813.8949, 703.813.8150~5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MD, DC, VA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우리말 바꾸기

‘금세’ 일까, ‘금세’ 일까?

1. 벚꽃이 () 지고 말았다.  
 2. () 내린 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  
 다음 중 위의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은?  
 ㉠ 금새-밤새  
 ㉡ 금세-밤세  
 ㉢ 금세-밤새  
 ㉣ 금세-밤세

문제에서처럼 ‘금세’ ‘금세’ 또는 ‘밤세’ ‘밤세’ 형태가 나오면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할지 헷갈린다. 발음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럴 때는 무엇의 준말인지 따져보면 된다.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금세’가 정답이다. ‘금(今時)’에 ‘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이다. ‘시’는 줄어 ‘세’가 되므로 ‘금시’→‘금세’가 된다.

둘째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어떻게 될까? 혹 ‘밤세’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역시 무엇의 준말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밤사이’의 준말이므로 ‘밤새’가 된다. ‘사이’는 줄어 ‘새’가 되므로 ‘밤사이’→‘밤새’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 금세-밤새’다. ‘밤세’와 비슷한 것으로는 ‘그새’ ‘고새’ ‘요새’가 있다. 이들 역시 ‘그사이’ ‘고사이’ ‘요사이’의 준말이므로 모두 ‘새’로 적는 것이 맞다.

다만 ‘금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물건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나타낼 때 ‘금새’라는 단어가 쓰인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대박 신기루’ 파고드는 투자 사기



김형재  
 사회부 부장

언론사에 들어오는 제보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연이 종종 있다. 특히 한평생 일군 소중한 자산을 사기당했다는 하소연을 들으면 먹먹하다.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계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사기범의 수법은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하다. 가장 흔한 투자사기 수법은 ‘돈을 맡기면 원금은 물론 높은 이자(배당금)를 보장한다’ 유형이다. 약속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은 은행 예금 금리의 2~10배나 되는 경우가 대부분.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이씨 부부는 몇 해 전 고액이자 제안에 넘어간 사례. 이씨 부부는 잘 아는 회계사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연간 이자로 1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씨 부부는 이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7만 달러를 건넸지만, 돌려받은 돈은 1만2000달러가 고작이다. 이씨 부부는 “나중에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1~2년간은 그나마 돈을 주더니 지금은 소송할 테면 하라는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땅을 쳤다.

요즘 한인 사회 투자 사기의 주요 행태 가운데 하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설명회 사칭이다. ‘마인닝 채굴, 투자거래소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코인 상장, 디지털 금광시스템 구축’ 등등 온갖 미사여구로 정보기술(IT)에 낯선 중·장년층 투자를 유인한다.

60대인 김 모씨는 10만 달러를 사기당했다. 그

후자로 귀결된다.

이들은 첫째, 대중에게 친숙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성공 사례를 내세운다. 둘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대행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채굴 시스템 등을 선전한다. 셋째, 확인이 불분명한 한국 또는 미국 타지역 본사의 거액 투자유치 사례 및 대규모 회원을 자랑한다. 넷째, 자체 코인 등을 발행했거나 상장 계획이라며 투자자에게 매달 5~15%(연이자 50% 이상) 배당금 보장을 선전한다.

사기 현장에는 조언, 바람잡이도 빠지지 않는다. 멀끔한 모습의 이들은 본인 계좌까지 공개하며 대박 투자를 자랑한다. 이면에는 가족, 친구, 지인까지 투자에 유인하면 더 큰 배당금을 주겠다는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의 꼬드김이다.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 등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확증편향’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한다. ‘대박’이라는 신기루에 빠진 나머지 투자 전 합리적 의심, 둘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중함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LA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6.4달러, 캘리포니아 한인 가정 중위소득은 약 7만6800달러다. 세금 떼고 생활비 쓰고, 순수하게 모을 수 있는 돈은 많아야 한 달 1000~2000달러다. 일반 직장인이 1만 달러를 모으려면 1년을 꼬박 일해야 한다. 대박 투자 유혹에 혹해 거액을 건네기 전 어떻게 모은 돈인지 곰곰이 따져야 할 이유다.

J네트워킹

멕시코 대선에의 핫 이슈, 물 부족



안착희  
 한국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 팀장

라틴아메리카의 강국 멕시코 정가에 보기 드문 인물들의 경쟁과 함께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고 있다. 멕시코에선 오는 6월 2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2만 명 넘는 선출직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1824년 연방정부 수립 이후 가장 판이 큰 선거다. 그중에서도 단연 관심이 쏠리는 자리는 대통령직이다.

특히 올해는 멕시코 역사상 최초로 유력한 후보 두 사람 모두 60대 여성이라는 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여성 정치인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집권 좌파 국가재건운동(모르나)당의 후보인 클라우디아 세인바움(62) 전 멕시코시티 시장과 우파 야당 연합체인 광역전선의 통합 후보 소치틀 갈베스(61) 전 상원의원. 이들은 비슷한 나이 외에도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 무엇보다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공약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는 경제·마약·치안 등 복잡다단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고질적인 물 부족사태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공로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인바움 후보는 지속가능한 물 활용 30년 계획을 갖고 나왔다. 정부뿐 아니라 농업·산업·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액션을 취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편의 갈베스 후보는 세인바움의 집권당이 지난 6년간 물 부족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전국의 상수도망을 늘리고 기존의 파이프 누수 복구에 우선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1억2000만 인구의 절반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멕시코. 두 후보가 내놓은 방안 모두 물 부족 사태를 이룬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가 되든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임박했다는 사실. 수많은 남성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난제를 여성의 리더십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다. 엘니뇨 현상으로 강수량이 줄어 십 년 넘게 계속된 가뭄은 현재 최악의 상태이다. 국토의 80%가 가뭄에 허덕이며 전국 저수지의 저수량은 40%대로 줄었고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는 단수에 고통받고 있다. 상황이 최악인 동남부 치아파스주 주민들은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가장 많이 마신다는 오명까지 얻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물 대신 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코카콜라로 갈증을 해소하며 심지어 아기에게도 콜라 젓병을 물린다고 한다. 끔찍한 일이다.

이런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 “당 간부 첩에 뇌물 줘야 평양가는 현실에 탈북 결심했죠”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38)은 4·10 총선 유일의 탈북민 당선인이다. 북한에서 엘리트만 갈 수 있는 국방종합대에 입학해 탄탄대로를 걷다 탈북한 뒤 서울대 공학박사와 대기업 연구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북한 인권단체의 선전물이나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 없이, 자생적인 사고 끝에 단신 탈북한 점에서 삶의 궤적이 남다르다.



북한 국방종합대(현 김정일종합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뒤 탈북한 박충권 당선인은 “미사일 전공자로서 나라의 안보가 우려돼 기업연구원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결단했다”고 했다.

소리가 나 위험해요. 워낙 적막한 심야라, 물에 뛰어든 때 ‘탐방’하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수심은,) 키가 177cm인데 머리 쳐들면 딱까지 잠길 정도였죠. 강에 얼음이 남았을 만큼 수온이 낮았지만, 워낙 긴장해 차갑다는 느낌도 안 들더군요. 사방이 칠흑이라 건너편이 안 보였지만 브로커 얘기대로 앞만 보고 직진하니, 10분쯤 만에 중국 땅이 나타나더군요. 맨발로 마구 뛰었어요. 나중에 보니 발이 피투성인데다 동상 직전이었어요. 숲이 나타나자 브로커가 준 번호로 휴대전화를 거니 중국 측 브로커가 나타나더군요. 조선족인 그를 따라 은신처에 도착하니 도시락을 주면서 ‘북에선 쌀밥 구경 못 했을 것’이라고 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사람 무시하냐. 가져가라’고 소리 지르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겠어요. 저처럼 고난의 행군 시절 종교교를 다닌 82년생~88년생이 북한에서 최저 학력 세대가 된 이유죠. 그러다 중학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아버지 강권으로 비락치기 공부 끝에 고교에 입학한 뒤 열심히 공부해 전교 3등으로 졸업했어요. 1, 2등 친구들은 해커부대로 빠져있어요. 북한은 전국 고교에서 수석·차석자를 해커부대로 데려가 전문가로 키워요. 북한 해킹 능력이 세계 3~4위권인 이유예요. 그 친구들이 휴가차 귀향했을 때 ‘네 부대에서 뭐하니’라고 물었더니 ‘말하면 안 돼. 스위스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는 게 방학 숙제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교 3위라 김일성대 갈 생각을 했는데, 국방대 가면 ‘군수 분야 간부 0순위’란 친구 얘기를 듣고 시험 쳐 입학했죠.”

**“국방대 학생조차 배고픔 달고 살아”**  
-엘리트 꽃길 대신 탈북을 결심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국방대 3학년인 2005년 학생 간부가 됐어요. 소속 중대(학급) 80명의 사상교육을 지휘하는 오직이죠. 이 자리에 오르면 학내 보위부 지도원의 지도를 받는데, 이때 북 체제에 처음 의문을 품게 됐어요. 간부가 되자 지도원이 방으로 저를 불렀는데 시벨린 글씨로 ‘우리의 생명’이라 적힌 액자가 붙어있는 등 분위기가 사뭇했어. ‘생명’이란 김일성 왕조를 뜻합니다. 지도원이 ‘네 중대 김○○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괜찮은 아이’라고 답하자 ‘친구랑 술에 피를 타 마시며 의형제 맺자고 했다더라. 사상이 의심스러운 친구’라고 하더군요. 중대에 보위부 스파이들이 깔려있어 80명 전원에 대해 속삭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나중에 지도원과 친해져 술자리를 하면서 ‘누가 스파이나’고 물으니 ‘1조엔 최○○, 2조엔 조xx’ 식으로 귀뽕해줘요. 다 착하고 말 없는 친구들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80명 중 8명, 10%가 스파이더라고요. 이리니 친구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는지 그때 깨달았는데 이젠 시작에 불과했어.”

-체제에 회의론을 품게 한 계기가 이어진 건가요.  
“그렇죠. 국방대에서 사상교육용 ‘노동’ 수업을 하는데, 김정은이 썼다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논문을 공부해요. ‘사회주의는 전체주의·행정부령·병역식’이란 서방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인데 읽어보니 ‘그 비판이 맞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른데 왜 유일사상을 강요하냐는 의심이 이어졌죠. 북한 당국은 또 남한의 ‘공우병 쇠고기’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조선은 반정부 시위를 할 수 있

**‘급우 중 10%가 보위부 스파이’ 알고 북 체제 회의 품어  
‘노동당 간부 내연녀에 달러 쥐야 평양 배치’ 듣고 경악  
북, 고교생 해킹전사 양성... 스위스 은행 해킹이 방학숙제  
탈북자가 ‘배신자’ 소리 듣는 현실 깨려 국회 진출 결심**

고, 우리라면 앞뒤 안 가리고 먹을 미국산 쇠고기도 거부할 만큼 삶의 수준이 다른 나라네’란 생각이 들었죠. 북한은 배급 수준이 최고인 국방대 학생들조차 배고픔을 달고 살아요. 단백질은 한 주에 두 번, 비지국·순두부국이 전부고 고기는 명절에만 줘요. 인간의 바닥을 경험하죠. 이런 가운데 탈북을 결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탈북을 실행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2007년 국방대 졸업 후 고향항구에 내려간 뒤 가족을 돌본다는 핑계로 군수공장에 안 가고, 장사를 해 돈을 벌었어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탈북 브로커를 1만 달러에 고용한 뒤 2009년 3월 북·중 국경 도시 무산에 잠입해 한 달간 은신했어요. 북한이 은하 2호 발사로 축제 분위기였던 그해 4월 10일 새벽 1시가 D-데이, H-아워였습니다. 브로커가 앞선해준 두만강 변 한 집에 숨어있었다 개구멍으로 강둑에 진입해 옆 드러 있었죠. 근처에 숨어있던 브로커가 ‘가라!’고 속삭이는 순간 맨발로 강에 뛰어들었어요. 주변에 국경경비대 초소 2곳이 있었는데 브로커가 매수해 둔 대원들이 근무를 개시한 직후 입수한 거죠. (왜 맨발입니까.) 신발 신으면

**중국 공안, 여권도 안 보고 ‘통과’**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북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니 중국 옷으로 갈아입은 뒤 인천행 크루즈가 운항하는 단둥까지 트럭으로 하루 넘게 달려 도착했어요. 마중 나온 한국인 브로커가 푸른색 대한민국 여권을 주더군요. 진짜 여권인데 다른 사람, 어떤 한국 여성의 여권이라고요. 놀란 내 얼굴을 본 브로커가 ‘통과시켜주니 담당하게 내밀라’고 해요. 출국 게이트에서 중국 공안에 여권을 건네니 정말 얼굴도 안 보고 도장 광! 찍어 보내주더라고요. 한시를 놓고 오후 4시쯤 배를 탔지만, 배가 북한 바다를 빠져나가는 자정까지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배가 인천항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경찰이 보이면 북에서 왔다고 하라’고 해요. 입국장에 들어가니 경관 2명이 있더군요. ‘북에서 왔습니까’고 하니 놀란 표정을 짓다 국경원 직원에 인계하더군요. 6일간 조사받았습니다. 북한 국방대에서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현황과 미사일 관제 센터 위치 등의 미 있는 정보를 알려줬죠.”

-성장사가 궁금합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10살 때부터 군인이자 노동당원인 아버지와 살았어요. 당시는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죠. 빵이 움푹 들어간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아사한 거예요. 5~6세 꼬마들이 들판에서 풀 뜯어먹는 걸 보기도 했어요. 중학생 때는 1년 반 넘게 학교 안 가고 놀았어요. 겨울에 난로조차 못 뽕 만큼 열악하니 누가 학교 갈 생각

**“친북 세력 의정활동 감시할 것”**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뒤 청년 과학기술자가 됐는데요.  
“서울대 화학과 한 교수님의 도움으로 공대 인턴 하다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땀습니다. 북한 국방대랑 수준차가 컸지만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끝에 1년 만에 수업을 따라잡았죠. 박사 탄 뒤에 현대제철 상무님을 만났는데 절 좋게 보셨는지 입사를 권유해 책임연구원으로 7년간 일했습니다. 자동차 변속기 기어 부품 개발 등 보람 있는 일을 했죠.”

-국회의원이 된 경유는요.  
“지나해 12월 국민의힘에서 ‘인재로 영입됐다’는 전화가 왔어요. 한참 고민하다 전 정부 시절 유희열변도대북 정책으로 약화된 나라 안보를 살리려면 국회에서 일해야 한다고 판단해 응낙했습니다. 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권엔 탈북자를 ‘배신자’라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정 위협하고, 주권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저항해 탈북한 사람이 왜 배신자입니까? 탈북 후 가장 큰 의문이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친북을 외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였죠. 이번 총선에서도 친북 논란이 야기되어 온 진보당이 3석을 확보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친북 세력의 국회 진입과 의정 활동을 규제·감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변허**  
이력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정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대 대법원 근무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송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infokddc@gmail.com**

**시 설**

**다시 '찐윤' 원내대표라니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 의원을 제외하면 마땅한 다른 도전자도 없는 모양이다. 이 의원만 단독 출마를 하면 경선 없이 원내대표에 추대된다.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참패를 당한 정당치고는 너무나 한가한 풍경이라 가짜뉴스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찐윤' 인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친윤 그룹에서도 윤 대통령과 소원해진 사람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까지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활동한 최측근이다. 이런 인사가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총선 민심에 귀를 막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총선 참패 책임 적잖은 이철규, 오히려 중용될 민심보다 윤심 중시한 오만으론 쇠신은 불가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같은 문제들도 사실 사건 초기에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더라면 지금처럼 커질 일이 아니었다. 그 고비마다 친윤 일색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용산 눈치만 보다가 민심 이반을 자초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찐윤'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건 여전히 '민심'보다 '윤심'을 더 중시하겠다는 오

만이면 뭔가. 이래서야 어떻게 당의 혁신을 기대하겠는가. 벌써 친윤 그룹이 이 의원을 미는 건 특검법 부결 표단속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한 공천을 주도하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 그랬다가 다시 이번 총선에서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 당연히 총선 참패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다. 심지어 이 의원은 선거전이 한창인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저격 회견을 열어 당 내분까지 일으켰다. 자숙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원내대표라니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안나올 수 없다.

가뜩이나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77)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명된 것도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이다. 6월 전당대회 때까지만 맡는 임시직이라고 하지만 8년 전에 정계를 떠난 인사를 당의 얼굴로 세우면 어찌자는 것인가. 비대위원장에 거론됐던 당내 중진들은 죄다 고사했다고 한다. 실권도 없는데 굶은일은 떠맡기 싫다는 속내였을 것이다. 당이 수도권에서 소멸할 위기를 맞았는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선 혁신 의지도, 희생정신도 찾기가 어렵다. 아마 국민의힘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범죄로 죽거나 다친 것도 억울한데 국가의 구조금을 받았다고 범죄자의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흥기 난동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범인 최원종은 구속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흑시 형량을 깎아줄까 봐 피해자들이 구조금 신청을 기피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살인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차별 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 감경 요인,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 감경 요인이 된다. 피해 회복에는 공탁도 포함된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피고인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구조금이나 보험금을 받으면 나중에 국가나 보험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결국 피고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이유로 판사들이 이를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올 2월에도 인천지법은 술집에서 시비 끝에 옆 좌석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

역 2년을 선고하면서 유족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은 점을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다.

정작 범인은 반성이나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국가가 구외 차원에서 준 돈을 받았다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감형해 주는 조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관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조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를 판결 확정 때까지 미루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전 수령을 피해 회복으로 인식하는 법관들의 기계적인 법 적용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고쳐, 범죄피해자구조금과 보험금은 감경 요인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 공탁을 감형 요인으로 판단하는 규정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형사 법정에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도 피고인 측이 선고 직전에 합의금을 공탁하고 감형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형이 확정되자 피고인이 몰래 빼간 사례도 있었다. 금전 보상이 감형 사유가 되려면 가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피해자 마음에 상처가 여전한데 어찌 피해가 회복됐다고 간주할 수 있겠는가.

**김 여사 조사, 피할 방법 있습니까?**



**이상언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심 재판이다. 이르면 7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 이 재판의 결과까지 반영해 김 여사 사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원만한 수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하나는 야당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혁신당 입장도 이 건에는 다르지 않다. 다른 하나는 검찰 인사 문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에 취임했는데, 지금까지 검찰 간부 인사가 없었다. 인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여사 관련 사건 지휘 책임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도, 그대로 뒤도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좋은 자리를 내줘도, 좌천성으로 보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 인사를 계속 미루기는 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주어진 과업을 네 종류로 분류했다. ① 긴급하고 중요한 것, ②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③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④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①은 즉각 처리, ②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처리, ③은 시간을 갖고 해결, ④는 일단 무시로 대응을 달리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로 불리는 일 처리 방법이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는 지난 3년간 ④에서 ③의 단계를 거쳐 ①의 문제가 됐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영부인의 높은 인기→검찰의 서면조사→여론 지지→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 이 시나리오가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했으나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디오르 가방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정식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 압박이 오히려 커졌다.

이제는 초읽기에 돌렸다.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야당은 '특검' 카드로 대통령을 옥죄든다. 여당의 총선 패배가 결정타가 됐다. 야권이 합세해 의결한 특검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된다. 국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이 '가(可)'를 적으면 더는 막을 방법이 없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레임덕' 수준을 한참 초과한 권력 공백이 온다.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게 또 있다. 검찰 내부 사정이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에서 수개월 전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처리 방안의 제1안으로 상부에 제시했다. 1안, 2안, 3안 식으로 건조하게 의견을 담았지만, 검사들은 다 안다. 1안에 수사팀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의 완곡 화법일 뿐이라는 것을.

검찰 수뇌부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 방법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는데, 이제는 총선도 지나갔다. 내세울 수 있는 다른 명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범들에 대한 항소

**초읽기에 돌린 영부인 수사 문제 특검법과 검찰 내부 사정이 압박 정면 돌파 외의 해결책이 보이냐**

렵다. 다음 달에 송경호 검사장이 서울 중앙지검장이 된 지 만 2년이 된다. 그 자리를 한 사람이 2년 넘게 맡는 것은 검찰 관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중간 간부들이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하다. 요직 등용, 지방에서의 상경을 고대하는 검사들이 즐비하다. 박정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현실을 계속 모르는 척하기가 힘들다. 인사 지연에 따른 내부 불만이 커진다.

검찰이 김 여사 조사를 기약 없이 미루면 야당은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검사 직무유기 의혹'을 추가할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늘 그래왔음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안다. 후배 검사들이 특검 사무실에 불려다니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그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제2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의 고향인 검찰은 자칫 만신창이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 문제의 해법을 대다수 국민이 안다. 수사팀의 1안에 있다. 정면 돌파 말고 다른 수가 있나.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저리사(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aquaviwater.com



#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49



미네랄수 \$179

알칼리수 \$219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3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 무료 설치
-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 SAVE MONEY

##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May 1,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계단 1층만 올라도 숨차는 '심부전' ...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심부전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고혈압이나 심장판막 질환,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등 다양한 심장 관련 질환이 진행하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다. 결국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뿜어내지 못하면서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중증 심부전은 암보다 5년 생존율이 낮은 정도로 치명적이다. 최근엔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 심부전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사회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도,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로 유명해진 국민배우 신구도 심부전 진단을 받았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심부전에 대해 살펴봤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인 심부전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유병수(대한심부전학회 이사장) 교수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늘면서 심부전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심부전 팩트시트 2022에 따르면 국내에서 심부전으로 진단받는 사람은 2002년 전체 인구의 0.77%에서 2020년 2.58%로 세 배 가량 증가했다. 심부전은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은 발병 위험이 높고 예후도 더 나쁘다.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는 결국엔 엔진이 망가지는 등 크고 작은 고장으로 운전이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하다.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문정근 교수는 "심부전으로 심장의 본래 기능인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유행이 생기고 전신 혈액순환이 불량해져 주요 장기에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15.8%는 만성콩팥병 동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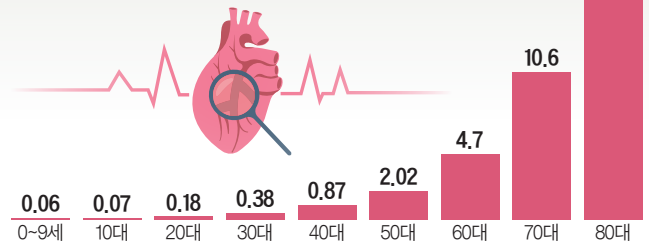
### 심부전 의심 징후

자료: 심부전 팩트시트 2022

1-2개 층만 올라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	눕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숨쉬기 편함	발이 통통 부어 신발이 작게 느껴짐	부종으로 체중이 늘어남	산책 등 저강도 생활도 매우 피곤해함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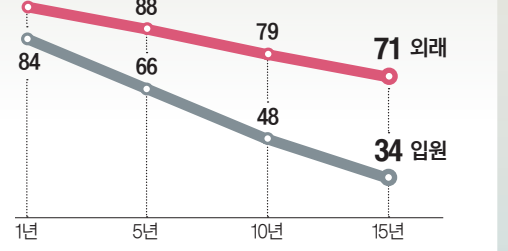
### 나이 들수록 발병 위험 높아지는 심부전

단위: % (유병률)



### 입원 치료 받을수록 장기 생존율 떨어져

단위: %



대표적 노인성 질환, 20년세 3배로  
호흡곤란·부종·전신피로감 등 증상  
중증 심부전은 암만큼이나 치명적  
약물 치료, 유산소 운동해야 안정화

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민정 교수는 "심부전 3대 의심 징후는 호흡곤란, 부종, 전신 피로감"이라고 말했다. 심장이 약해지면 산책·쇼핑 등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혈액과 함께 운반되는 산소 공급량이 떨어져 호흡곤란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몰아쉬는 등. 계단을 1-2개 층만 올라도 전력질주를 한 것처럼 헉헉대는 식이다. 다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에 부쳐 무의식적으로 덜 움직이다 보니 숨이 가쁜 호흡곤란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증 심부전으로 진행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숨을 몰아쉬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심지영 교수는 "누워있으면 피가 심장 쪽으로 쏠리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 앉아있는 것을 편안해 한다"고 말했다.

다리·발목·발 등 하체가 통통 붓는 부종이 있을 때도 심장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데다

심장 내 압력 상승으로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면서 부종이 잘 생긴다. 부종으로 체중이 늘기도 한다. 발이 통통 부어 잘 신던 신발이 작아진 것 처럼 느끼기도 한다. 심장의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불량해진다. 그 여파로 콩팥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 온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신 피로감이 심해진다. 상호 보완적으로 전신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심장과 콩팥은 혈액학적으로 하나다. 심부전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콩팥의 여과 기능도 나빠진다. 심부전 환자의 15.8%는 만성콩팥병을 동반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심부전은 발견이 늦을수록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고 장기 예후도 불량하다. 심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그에 따라 온몸으로 내뿜는 심박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심박출수가 빨라지고 심장이 커지고 심근이 비대해진다. 권선미 기자 > 4면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초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초 앞 7700 건물 6층**

# 소리 없이 약해지는 뼈... 골밀도 체크하고 혈압·혈당처럼 관리해야

## 골밀도 검사 바로 알기

혈압·혈당처럼 뼈 건강을 점검해볼 수 있는 숫자가 있다. 골밀도 점수다. 뼈가 튼튼한 사람의 골밀도와 비교해 내 뼈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골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중년이면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뼈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골밀도 점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한골대사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70대 여성 응답자의 90%는 골다공증 골절이 노후에 위험한 질병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5명 중 4명은 '나의 골밀도 수치'를 모른다. 자신의 골밀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더 신경 쓰며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밀도 검사는 척추, 대퇴골(고관절), 요추 부위의 뼈 밀도와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골다공증·골감소증을 진단하고, 골절 위험을 예측한다. 노화로 인해 뼈속을 채우고 있었던 성분들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 뼈는 약해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다.

### 건강한 남성도 65세부터 검사 필요

검사에서 골밀도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뼈가 약해 골절에 취약한 상태라는 의미다. 골밀도 T-점수가 -1.0 이면 정상인보다 뼈의 양이 10~15% 감소한 것이다. 점수가 1만큼 감소하면 골절 발생 위험은 2~3배 높아진

다. 점수가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 위험 인자는 ▶65세 이상 ▶50세 이상 여성 ▶조기 폐경 ▶골절 경험 ▶예전보다 키가 줄거나 허리가 굽은 증상이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골밀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상담하길 권한다.

여성에서 폐경은 뼈가 약해지는 주원인이다. 여성호르몬 감소로 인한 골밀도 소실은 마지막 생리의 약 1년 전부터 급속히 진행된다. 폐경 전부터 골밀도 점수의 변화 추이를 보며 골다공증을 예방·관리하는 게 좋다. 결과 해석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동일한 곳에서 지속해서 검사받으면 좋다. 만 54세, 66세 여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남성도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으면 50세 이후부터는 골밀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50세 이상 남성 두 명 중 한 명은 뼈에 함유된 칼슘·미네랄 등이 정상 이하로 떨어진 골감소증이다. 골감소증은 골다공증 전 단계다.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으로 진단 받은 사람 중 가축력·음주·스테로이드·전립샘암 등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좋다. 골다공증 위험 요소가 없는 남성은 65세 이후부터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남성 골다공증은 뼈를 공격하는 여러 위험 요소가 쌓이면서 뼈가 서서히 약해지는 게 특징이다.

### 약물치료 땀 골절 위험 50% 이상 낮춰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질환으로



**Tip**

**골다공증 위험 인자**

- 65세 이상
- 50세 이상 여성
- 조기 폐경
- 골절 경험
- 키가 줄었음
- 허리가 굽음

\*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골밀도 검사 필요

자료: 대한골대사학회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스테로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젊은 나이에도 골밀도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골밀도 검사는 검사 장비에 5~10분 정도 누워있으면 된다. 특별한 준비사항은 없고, 검사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다. 검사에서 사용하는 방사선(X선)량은 자연에 존재하는 수준의 소량이다.

혈압·혈당을 관리하는 것처럼 골밀도 점수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이어도 약물치료를 잘 받으면 골밀도 점수를 높여 골절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골절을 경험할 위험이 커지고, 건강이 도미노처럼 악화한

다. '골다공증 팩트시트 2023'(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손목·척추 등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때 1년 이내에 또다시 뼈가 부러질 확률은 남성이 4배, 여성은 2배 높아진다.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골밀도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에서 뼈 건강을 관리하는 목적은 나이 들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속도를 늦추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골밀도는 사춘기 무렵에 급격히 증가하고 20~35세에 최대에 이른다. 이때의 골량을 최대 골량이라고 한다. 최대 골량이 많았던 사람은 이후 골 소실이 비슷한 속도로 일어나도 훨씬 유리하다. 젊은

때부터 영양·운동으로 뼈 건강을 최대한 다져 놓고, 이후 골밀도 검사로 변화 추이를 보며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한다.

골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는 호르몬·영양·신체 활동이다. 뼈를 튼튼히 하는 영양소인 비타민D는 햇빛을 쬐어야 생성된다.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에 하루 1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면 된다. 가볍게 걷는 산책에 더해 체중이 실리는 에어로빅·조깅 같은 운동을 해야 골밀도가 높아진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 등 뼈째 먹는 생선, 저지방·무지방 우유, 시래기나물 등을 챙겨 먹으면 좋다.

이민영 기자

## 알림 제10회 건강기능식품 대상

# 전문가들이 효능·안전성 검증...참여 희망 기업 공모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국민이 건강관리를 위해 찾는 단골 아이템이다.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이 챙겨 먹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대중화되면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체 전반의 건강을 챙기는 제품뿐 아니라 눈·피부 등 특정 부위의 건강을 증진하고 미용 효과도 줄 수 있는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와 허위·과장 광고로 올바른 제품 선택에 혼란을 겪는 소비자도 많다.

이에 중앙일보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엄선해 시상하는 '2024 건강기능식품 대상'을 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건강기능식품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인정받는다. 식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부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헬스미디어가 주관하며 JTBC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건강기능식품 대상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효능과 안전성 등을 검증해 신뢰할 수 있는 우수 건강기능식품을 가른다. 지난해의 경우 인지력과 기억력 향상, 지구력 증진, 면역력 정상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 다양한 기능성을 내세운 제품들이 치



열한 경쟁을 벌였다. 식품영양·식품공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평가를 통해 최우수 건강기능식품 12종을 선정,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종, 부문별 건강기능식품 대상 9종이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조흥연 고

려대 식품생명공학과 명예교수는 "해의 원료를 수입해 단순 임가공한 제품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기능성과 섭취균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 많았다"고 평했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생산시설의 적절성, 고객 관리, 성장성 등의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참여한 기업들은 "제품과 기업을 알리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 5월 24일까지 접수 진행

올해 건강기능식품 대상에서도 업체

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 부문별 우수 제품을 뽑는다. 시상식에서는 각 기업에 상장과 트로피를 전달하고 최우수 제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4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 접수를 비롯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jo.yongjoon@joongang.co.kr)과 전화(02-2031-1012)로 문의하면 된다.

하지수 기자

#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53.9%	42.9%	2.3%	0.0%
대우총동	당뇨	노화시작	주의	나쁨		대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뻣음

오래 앉아있지 못함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발목 뻣음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뒤꿈치

75°

30°

구부러짐 힘들다

뒤로 피기 힘들다

피지지 않음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엉치

sciatica

좌골신경통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 과식·편식은 성장기에 치명타... 균형 잡힌 식단 갖추고 식사 리듬 맞춰야

**우리 아이 식습관 바로잡기** 성장기에 균형 잡힌 식사로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에 필요한 영양을 고루 얻어야 건강하게 클 수 있다. 식욕이 넘쳐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찌고 성숙이 빨라져 비만·성조숙증을 유발한다. 반대로 식욕이 없거나 편식이 심하면 체중이 줄고 성장 발달이 더딘 양상을 보인다. 모두 성인기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날(5월 5일)을 앞두고 먹는 습관에 따라 자녀 건강을 현명하게 챙기는 방법을 정리했다. 김선영 기자

## 식욕 넘치는 아이

소년·청소년기에 식욕이 넘쳐 과하게 먹으면 체중이 불어나 비만해지기 쉽다. 특히 어린이 입맛에 당기는 탄수화물·지방 위주의 식사와 간식을 자주 먹으면 몸 안에 체지방이 지나치게 쌓여 지방간·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어린 나이에도 나타날 수 있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2021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 10.4%에서 25.9%, 여아 8.8%에서 12.3%로 크게 늘었다. 단순히 살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만은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적인 성숙이 빨라져 성조숙증을 초래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조경을 시작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이 일찍 끝나 최종 키가 작아지는 문제를 겪는다.

어린이의 경우 성별·나이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 백분위 수가 85~94.9는 과체중, 95 이상은 비만에 해당하므로 주의한다. 눈으로 봤을 때 ▶또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키가 크며 ▶여아는 둔부, 남아는 몸통이 퉁퉁해지고 ▶유선에 지방이 쌓여 유방이 커진다. ▶배나 허벅지 부분에 백색 또는 자색 줄

무늬가 나타나거나 ▶목주름·겨드랑이·사타구니 주름이 검게 착색됐다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신중하다.

성장기라는 점을 고려해 체중을 급격히 줄이기보다 더 늦지 않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습관 교정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정상화하고 비만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총칼로리 섭취를 줄이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비율을 50%, 20%, 30% 수준으로 맞춰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한다. 그러려면 끼니별로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분하고 질 좋은 영양소 급원 식품을 활용해야 한다.

어떻게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과식·폭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방과 후부터 자기 전까지 과식하는 습관을 없앤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한 번 먹을 때 최소 20분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먹도록 유도한다. 식사·간식 섭취는 식탁에서 만 이뤄지게 하고 음식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둔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은 가족의 식생활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 또한 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한다.

연령별로 보면 3~5세 유아는 섭취 식품이나 조리법의 종류가 점차 늘어나는 시기다. 이때 편식하는 식품이 생기고 친숙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선호 식품과 비선호 식품을 고려해 식단을 구성함으로써 편식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카레에 버섯을 잘게 썰어 넣거나 메추리알 장조림에 콩나물무침을 곁들이는 식으로 고루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짤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다빈도 식품

분석 결과, 6~11세를 기점으로 치킨·라면·돈가스·피자·탄산음료·아이스크림 섭취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고지방·고나트륨 음식 섭취를 줄이고 섭취 빈도가 높은 식재료에 지방·나트륨이 적은 조리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12~18세의 경우 잡곡밥·쌀밥과 함께 라면이 3대 주식으로 꼽히고 단순당 함량이 높은 간식을 자주 먹는다. 고염·고지방 식품은 청소년기 균형적인 식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섭취 빈도를 줄이고 간식으로 과일류나 우유·유제품류를 활용한다.

## 식욕 없는 아이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밥을 잘 안 먹거나 고루 먹지 않으면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져 성장·두뇌 발달에 해가 될 수 있다. 지극히 잘 먹던 아이가 어느 때부터 식욕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면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발열이나 감기, 입병, 위장계 이상, 요로감염처럼 몸이 아픈 경우가 대표적이다. 만성적인 빈혈, 변비, 결핵 혹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어도 식욕이 줄 수 있다. 이때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특별한 동반 질환 없이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경우다. 이때 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개 ▶다양한 맛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할 때 ▶식사 환경이 산만할 때 ▶부모나 가족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고 할 때 식욕이 줄거나 없어지기 쉽다. 기본적으로 생후 6개월까지 체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이후부터 둔화한다. 이 과정에서 먹는 양이 자연히 줄 수 있고 개인차가 있던 사실을 부모가 인식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약은 공복감이야. 활동하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찾게 된다. 아이가 공복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모가 참지 못하고 억지로 식사하게 하거나 간식을 내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식사 시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길게 가질

필요가 없다. 30분 이내로 줄이고 잘 먹을 땐 칭찬해 줘 식사가 즐거운 활동이란 점을 상기시킨다. 반대로 30분 안에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치우고 스스로 음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공복감을 위해 다음 식사 때까지 물 이외의 간식은 주지 않는다. 식사 유인책으로 단맛 나는 간식을 주거나 미디어·책·장난감을 이용하는 건 피한다.

부모의 일관된 행동도 필요하다. 적어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나이에 5세 이후부터 식탁에 앉아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식사 예절을 익히게 한다. 또한 정해진 만큼 밥을 먹지 않으면 식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사실을 인지시킨다. 그래야 아이는 '아무리 울고 떼를 써도 안 되는구나'를 인식해 행동이 조금씩 변한다. 먹고 나서 속이 안 좋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라면 소화·흡수가 용이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게 좋다. 폭삭은 닭죽이나 생선 살, 달걀찜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하고 서서히 양을 늘려 나간다.

낯설거나 새로운 것에 느끼는 공포를 뜻하는 네오포비아는 음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음식 네오포비아는 생후 6~7개월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만 2~7세에 최고조에 이른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음식에 대한 편식이 심한 건 이때문이다. 초기 청소년기로 가면서 다양한 음식에 친숙해지면 음식 네오포비아도 줄어들어든다. 따라서 새로운 음식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가 선호하는 색과 크기, 질감에 맞춰 조리하고 가족이 해당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 아이가 호감을 갖도록 돕는다.

체중이 줄지 않고 성장 속도가 평균 범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성장이 남들보다 더디면 소량이라도 고칼로리 식이를 하는 게 좋다. 전문가의 식이 지도를 받거나 식습관 개선과 함께 멀티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먹으면 도움된다.

도움말=김주영 대전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최진호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내분비내과 교수, 참고 자료=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1-2세	3-5세	6-11세 여아	12-18세 남아
권장 식단	차조밥 시금치된장국 삼치구이 감자조림 백김치	쌀밥 무채된장국 돼지고기버섯카레 오이나물 배추김치	흑미밥 무채양파국 가지미구이 감자멸치조림 김구이, 배추김치	우동 멸치건과류주먹밥 단호박튀김 토마토케일샐러드 배추김치, 파인애플
하루 권장 섭취량	총 900kcal 탄수화물 53% 단백질 17%·지방 30%	총 1400kcal 탄수화물 58% 단백질 15%·지방 27%	총 1700kcal 탄수화물 55% 단백질 17%·지방 28%	총 2600kcal 탄수화물 56% 단백질 14%·지방 30%



##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텝,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 음성꽃동네서 무보수 진료 봉사 20년... “결국 나를 돕는 일”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받았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국내의 의료 현장에서 나보다 크게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이 많다. 더 훌륭한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귀한 상을 받게 돼 미안할 따름이다. 봉사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오래 머물러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배려로 주어졌 것 같다. 앞으로 더 힘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

-의료봉사에 뛰어난 계기가 궁금하다.  
 “199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의료봉사의 첫발을 뗐다. 현지 선교사의 청원으로 17명의 의료진과 함께 의료봉사에 나섰다. 당시 태국 치앙마이와 중국 산속에는 10만여 명의 몽담족(산족)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50여 명의 미국인 봉사자를 보면서 진한 여운을 느꼈다. 그때부터 의료봉사의 매력에 빠져 라오스·몽골 등 해외와 국내를 넘나들며 여러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음성꽃동네에서 활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양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진료하다 2005년 정년퇴임했다. 이후 닷새 만에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을 찾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내과 과장으로 무보수 진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꽃동네는 2000여 명의 소외된 이웃이 모여 사는 곳이다.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 보호대상아동 등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이뤄진다. 노숙인을 위한 의료봉사를 많이 하던 당시 청진기로 진찰만 해서는 환자의 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최소한의 검사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싶었다. 그렇게 의료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보다 전문적

인터뷰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최일영 한양대병원 명예교수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의사가 있다. 집에서 음성꽃동네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인술을 펼치는 최일영 한양대병원 명예교수가 주인공이다. 85세 나이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아직도 봉사를 실천할 때만큼은 활기가 넘친다. 그는 20여 년간 진료 봉사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제40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받았다. 보령의료봉사상은 ‘한국의 슈바이처’를 발굴하면서 참된 의료인상을 정립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이 1985년 제정한 상이다. 그동안 고(故) 이태석 신부를 비롯한 18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의료계 사회공헌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다.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에서 최 교수를 만나 의료봉사로 접철된 그의 삶을 들었다.



최일영 한양대병원 명예교수는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20년간 무보수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인성욱 객원기자

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됐다.”

-의료봉사의 원동력은 뭔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결국 나를

돕는 일이다. 그리고 의료봉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머물며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전에는 내가 필요한 곳에 있었지만, 이제 나를 꼭 필요

로 하는 낮은 곳에 가 있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음성꽃동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며, 내가 있을 곳이다.”  
 -어떤 환자와 활동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나.  
 “사실 모든 활동이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9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기독교사회사업위원회 ‘영등포 자유의 집’ 노숙인을 위해 야간 진료를 하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IMF 직후라 당시 서울시 노숙인의 수가 많았다. 자유의 집엔 14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몇 년간 꾸준히 봉사하다 보니 노숙인 수가 크게 줄었고, 진료소는 자연스럽게 해산했다.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음성꽃동네에선 2011년 9월 110세 나이로 소천하신 김 할머니가 떠오른다. 꽤 오랫동안 친구처럼 함께 시간을 보낸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영원한 안식을 빌 수 있어 감사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이제 주변에선 힘든 일을 그만이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물론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칠 때도 있다. 그런데도 아직은 봉사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조금이라도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봉사할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환자들이 내 손을 잡고 웃거나 감사함을 표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돈을 버는 것과 환자를 많이 보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봉사활동을 통해 내적 만족감을 쌓아가는 것이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삶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많은 사람이 소외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힘을 보탬 수 있길 기대한다.”

▶1면 ‘심부전’에서 이어집니다  
 결국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면서 중증 심부전으로 진행하게 된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이찬주 교수는 “중증 심부전은 암만큼이나 치명적이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의 1년 생존율은 84%, 5년 생존율은 66%에 불과하다. 이는 주요 압과 비교해도 낮다. 대개 심부전 증상이 있어도 놓여서 그런 것으로 방치하다 뒤늦게 중증 심부전으로 진단받는다. 65세 이상 고령으로 호흡곤란, 부종, 전신 피로감 등 증상이 있다면 심장 상태를 살펴보는 기본검사와 더불어 심부전 바이오마커(NT-proBNP) 혈액검

사를 받는 것이 좋다. 심부전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부전 치료의 핵심은 안정적 증상 관리를 통한 질병 진행 억제다. 유병 수 교수는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면서 호흡곤란 등 심부전 증상이 심해지는 심부전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심장 상태가 약한 데 심부전 악화로 반복적으로 심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 약화가 가속화된다. 심부전 환자 2명 중 1명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할 정도로 심부전 악화가 빈번하다. 박민정 교수는 “심부전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예후가 불량해진다”고 말

했다.  
 심부전은 입원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심부전으로 처음 입원했을 때 생존 기간은 2.4년이지만, 두 번째 입원 때는 1.4년, 세 번째는 1.0년, 네 번째는 0.6년으로 단축된다. 문정근 교수는 “최근엔 심부전 악화로 인한 재입원율을 줄이는 효과를 입증한 신약이 나오는 등 심부전 치료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심부전 징후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생존율 개선에도 긍정적이다. 진료지침에 근거한 표준 치료로 반복된 심부전 악화로 심장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중증 심부전으로 진행할 위험을 줄여준다.

입원할 때마다 사망 위험 높아지는 경향  
 초기 심부전의 경우 외래에서 약물치료로 안정적으로 증상을 관리했을 때 5년 생존율은 무려 86%다. 심지영 교수는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하로 떨어져 1차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악화를 경험할 땐 심장의 수축력을 회복하는 병용 요법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부전 치료는 상호보완적 약물 조합이 임상적 이득이 높다. 정부에서도 심부전 재입원율을 줄이기 위해 심부전 약물치료의 보험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치명적 부정맥 발생 위험도가 높다면 심장 제세동기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이찬주 교수는 “심장 제세동기는

순간적으로 심장에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해 심장 리듬을 다시 정상적으로 뛰도록 해 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여준다”고 말했다.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다.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금연, 금주, 체중 감량, 심계박 맥기,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한다. 숨이 차더라도 심장을 단련하는 규칙적 운동이 중요하다.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면서 심부전 진행을 늦추는데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심부전 증상이 악화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 대처하면 재입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권선미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한방 칼럼

다한증이란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열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비정상적으로 땀을 흘리는 질환이다.

다한증이 심한 경우, 하루 2~5l의 땀을 흘릴 뿐 아니라 액취증까지 동반된다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준다.

다한증은 교감신경의 이상으로 땀샘 조절기능에 발생하는 일차성 다한증과 갑상선 기능항진, 심장 질환, 비만, 불안상태, 갱년기 등 전신질환과 연관되는 이차성 다한증으로 나뉜다.

다한증의 한방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장과 담(쓸개)의 약화다. 신경이 예민하거나 불안, 긴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여, 흥분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조금만 받아도

과도한 땀이 지속한다.

둘째,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열성 체질인 사람에게 발생한다. 열성 체질은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을 많이 분비하는데, 과도한 땀이 지속하면 점차 땀샘 조절기능이 상실되어 다한증으로 발전한다.

셋째, 몸이 차고 체질적으로 원기가 약한 사람에게 발생한다. 원기의 약화로 땀샘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몸 안의 진액까지 땀으로 분비한다.

▶다한증의 생활 수칙을 소개한다.

과체중의 경우 몸의 과한 열로 인해 땀이 나므로 체중 조절은 필수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고 지방 줄여야 한다. 소화가

### 다한증에 한방치료 효과적



박연정 원장  
심리상담가(LCSW)  
LA 해성한방병원

잘 안 되는 밀가루, 유제품을 피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다한증에 효과적인 혈자리를 소개한다.

- 1. 합곡: 손등,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오목한 부분.
- 2. 족삼리: 무릎뼈 바깥쪽에서 하단으로 손가락 4개를 겹친 만큼 내려간 곳에 위치.
- 3. 태충: 발등, 첫째와 둘째 발가락 사

이 갈라진 부분부터 2~3cm 정도 발등으로 올라간 오목한 부분.

4.부혈혈: 다한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자리로 발목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의 중간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위에 있다.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혈자리로 부증이 있을 때 눌러주면 도움이 되고, 전신에 기운이 없고 몸이 차 때 도 지그시 눌러주면 좋다.

방법은 4개의 혈자리를 10~20초 정도 지긋이 번갈아 눌러주면 긴장 완화와 발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한증에 좋은 한방차를 소개한다.

-황기차: 황기는 땀샘의 조절 기능을 개선하고, 몸의 진액과 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한증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하여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 있다. 만드는 방법은 황기 40g을 물에 씻어 물 1l에 넣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서 마신다. 하지만, 체온상승, 혈압상승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미자차: 오미자의 강한 신맛은 몸의 수렴작용을 통해 땀을 조절하고 비타민 A, C가 풍부하여 피로 해소에 좋아 기력을 회복하고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 만드는 방법은 오미자 30g을 1l 물에 하루 동안 상온에서 우려낸 후 끓이지 않아도 된다. 우린 물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루 1~2잔을 기호에 따라 꿀을 가미해서 마시면 좋다.

-연잎차: 연잎 속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신 안정과 땀샘분비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정신 건강

### 로봇 수술의 단점

지난 시간까지 로봇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봇 수술의 단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 중 촉감을 느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도의가 로봇 팔이 부착된 상태로 조종하도록 셋업이 되어있다 보니, 실제 장기를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로봇 수술을 할 때는 집도의가 로봇의 팔을 조종하게 되므로 로봇 수술 기구 끝에 느껴지는 촉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이 이 이유 때문만으로 위험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로, 집도사의 기술과 실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발달된 수술 방법이다 보니 아직 모든 외과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술 섭렵 정도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로봇의 이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환자를 오히려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의 차이입니다. 먼저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점은, 미국에서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즉 환자의 입장에서 로봇 수술을 한다 해도 비용은 복강경 수술과 같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로봇 수술의 비용이 훨씬 높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만 큰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 사이의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장지아 원장  
LA 장지아 일반 외과

그렇다면 로봇 수술은 어떤 경우에 이로운가요? 우선 복강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은 로봇으로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일반 외과 수술인 담낭 절제술, 맹장 수술, 탈장 수술 등은 로봇을 이용하면 더 쉽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더 빛을 발하는 경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담낭염증으로 담낭이 주변 장기들과 둘러싸여 유착 현상이 발생해 곤합니다. 이런 경우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면 수술 부작용의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고 회복 수술이 필요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각종 암 수술에도 로봇 수술이 빛을 발합니다. 위암 수술, 대장암 수술, 심지어 체장암 수술이나 간암 수술에도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을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도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반 부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식도 주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로봇 수술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복막염도 로봇 수술로 하는 것이 도움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술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예상될수록 복강경 수술보다 로봇 수술을 더 선호합니다. 수술 중 난관에 부딪혔을 때 로봇을 이용하면 쉽고, 안전한 해결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 칼럼

### 척추 수술 시기 놓치면 '낭패'

척추 수술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많다. ‘척추 수술은 위험하다’, ‘해봤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등등.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잘못된 인식으로 척추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수술은 물론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병을 키우고, 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모든 척추가 한꺼번에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추만해도 사람에게 따라 5개가 있는데 보통 네 번째, 다섯번째 부분부터 손상이 가기 시작한다.

척추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손상을 방치해버리면 도미노처럼 다른 부위 척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만약 초기에 일부분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병변 부분만 수술로 해결하면 된다.

이때는 소규모의 수술로, 수술도 수월하고 회복도 비교적 빠를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환자들이 수술 공포심에 몇 년을 버티다 다시 병원을 찾는데, 그때는 이미 심하게 악화한 후이다.

게다가 척추 질환은 노화로 인한 병인 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더 들수록 회복력은 떨어진다. 일부는 또 다른 질환 때문에 수술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즉, 척추 수술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이다.

척추 수술은 단순히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척추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



이선호 신경외과 전문의  
LA 할리우드 차병원

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수술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고령층 환자들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퇴행성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중 척추관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척추 전방위 전위증 등 부분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심하게 동반한 경우, 그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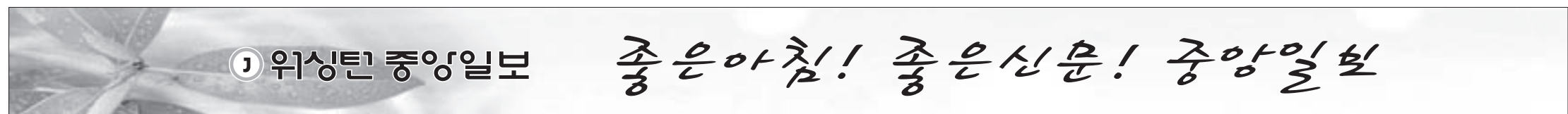
여기저기 이미 다 퇴행성 변화로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일부분만을 수술로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을 해도 낫지 않더라’ 라는 일종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수술 전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여러 의사로부터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 보는 것도 추천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기구들도 고도화되면서 의술이 발달하고 수술 시간도 크게 단축됐다. 감염과 합병증 등 위험 부담이 훨씬 더 낮아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막연한 공포감과 선입견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숙련된 전문의를 찾고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소지사,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국립극단 '스카팽' 열린 객석 실험
'조용히 보라'는 연극의 규칙 깨
아동·노인·발달장애인 관객 배려
수어통역사 4명도 함께 무대 등장

"연극 '스카팽'을 보러 오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연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장과 퇴장이 가능합니다."

지난 12일 연극 '스카팽'(연출 임도완)을 보기 위해 찾은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생소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공연 중 언제든 퇴장해도 괜찮으며, 원활한 입·퇴장을 위해 객석 조명을 완전히 소등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공연 중 퇴장하면 재입장이 어렵다"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등반이에 등을 붙인 자세로 관람하라" 등 통상적인 공연장 안내 멘트와는 달랐다.

이날 개막해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공연은 이처럼 전 회차가 '열린 객석'으로 진행된다. 공연 중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자리에서 뒤척여도 상관없다. 이날은 음성 해설, 한글 자막과 함께 수어 통역사가 무대 위에 등장하는 '접근성 회차'가 진행 중이었다. 2019년 초연, 2020년과 2022년 재연·삼연을 거쳐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희곡 '스카팽'이 통념을 깨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극은 재벌가 회장들이 자녀의 정략결혼을 결정하고 여행을 떠난 사이 그 자녀들이 뜻밖의 인물과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고압적인 부모에 맞서는 두 쌍의 연인은 영리한 하인 스카팽의 도움을 받아

하인 실베스트르를 담당한 권재은 수어통역사(왼쪽)는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진 국립극단]



떠들어도 들락날락해도 OK
관객에 자유를 준다

연극 '스카팽' 공연 사진. 과장된 분장과 의상은 1600년대 유럽에서 유행한 희극 양식 '코미디아 델라르테'의 특징 중 하나다. [사진 국립극단]



난관을 헤쳐나간다. 당시 월간 '한국연극' 선정 올해의 베스트 공연 일곱 작품 중 하나로 뽑혔고, 제56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등을 받았다.

지난 시즌 '망종 회향' 사건과 학제 개편, 논문 표절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을 연극에 재치 있게

계 녹인 임도완 연출이 이번에도 시사 풍자를 선보인다. 대통령 경호원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연구원의 입을 틀어막은 '입틀막' 사건, 축구 국가대표팀의 내분이 드러난 '탁구 사건' 등을 패러디한 장면이 관객을 포복절도케 한다.

배우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어 통역을 선보이는 통역사들의 연기는 극의 백미다. 이들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배우의 분신처럼 등장하는데,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 연기만으로도 존재감을 뽐낸다. 배우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장면에서는 통역사도 들것에 누워 앉는 연기를 한다. 하인 실베스트르의 대사를 전담한 권재은 수어 통역사 등 6명 중 4명이 현역 연극배우이거나 배우 출신이다.

객석에 켜진 은은한 조명은 관객의 자유로운 입·퇴장을 도울 뿐 아니라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 배우들은 관객의 반응을 보며 애드립을 던졌고, "박수가 늦다"거나 "여기에서 손뼉을 왜 치냐" "또 속은 거냐"며 관객들에게 말을 건넜다. 연극보다는 스탠드업 코미디나 토크쇼 같은 편안한 분위기였다.

'열린 객석'으로 어둡고 경직된 환경에서 공연을 보기 어려운 관객을 배려했다는 점도 돋보인다. 어린이·노인과 감각 자각에 예민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 장애 관객도 마음 놓고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접근성 회차' 공연은 12~15일 총 4회 진행됐다. 이 기간 공연 내용이나 대사를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관객을 위해 1층 로비에는 대본이 마련됐다.

초연부터 함께해온 이종현(스카팽), 성원(몰리에르), 박경주(실베스트르), 이호철(옥타브) 배우가 이번 시즌에도 관객을 맞는다. 이다혜(이아상프), 정다연(제르비네트), 이후진(제롬프)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홍지영 기자

아이돌만 가는 코첼라? K밴드도 다녀왔다

"우린 서울의 아주 작은 흥대 클럽에서 관객 20명을 놓고 시작했어요. 절반 이상이 지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분들과 함께해요."

밴드 더로즈(김우성·박도준·이하준·이재형)는 지난 14일과 21일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 감격한 듯이 같이 말했다.

한국 밴드 최초로 코첼라 무대에 선 더로즈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밴드다. 코첼라에서도 관객들의 폐장 모습이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혔다. 이들은 한국어 가사까지 따라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9월 발매한 더로즈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듀얼'은 한국 밴드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83위). 국내외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MPMG 서현규 이사는 "공연에서 밴드 수요가 확실히 늘었다. 영어 앨

안팎으로 잘나가는 K밴드

'빌보드 200' 83위 기록한 더로즈
국내 밴드 최초 코첼라 무대 올라
데이식스 '에뻬어'는 차트 역주행

범을 낸 한국 밴드들에겐 특히 관심이 쏠린다"며 "더로즈처럼 해외에서 각광 받는 한국 밴드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이브투어스(김다니·차순중·신동규)도 해외 관객이 먼저 인정하는 한국 밴드다. 스포티파이에서 월별 청취자 수



더로즈의 우성(왼쪽)·재형이 코첼라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 트랜스퍼먼트 아트]

가 724만명(2023년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앨범 '플로스 앤 올' 발매를 기념한 동명 투어로 북미 18개 도시 20회 공연을 매진시켰고, 올초 아시아와 유럽 무대에도 올랐다.

국내 차트에서도 밴드 음악이 강세다. 그 중심엔 밴드 데이식스(성진·영케이·원필·도운)가 있다. 2017년 발매한 '에뻬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역주행하면서 각각 멜론 일간차트 10위, 11위(29일 기준)에 올랐다. 특히 '에뻬어'는 이호리가 KBS2 '더 시즌즈'에서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추억하게 한 노래"라며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다. 지난 12~14일 잠실실내체육관 콘서트에서 3만 4000명의 관객을 모은 데이식스는 "밴드 사운드로 구현할 수 있는 음악으로 팀의 개성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5월 18~19일 공연을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시킨 실리카겔(김건재·김한주·김준주·최웅희)은 밴드 붐의 주역으로 불린다. 2013년 평창 비엔날레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밴드였다가 2016년 동명의 정규 앨범으로 정식 데뷔했다. 인디 신에서 '힙하다'는 입소문을 타다가 2022년 '노 페인' 발매를 기점으로 '슈퍼스타 밴드'로 등극했다.

밴드 붐에 힘입어 개성 있는 밴드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유희열이 대표로 있는 안테나는 자사 첫 밴드인 드래곤포니(안태규·편성현·권세혁·고강훈)를 연내에 론칭한다. 2인조 밴드 NND(대인·영준)와 JTBC '슈퍼밴드'를 통해 이름을 알린 9001(조곤·주원·의건·원우)은 최근 일본에서 공연을 가졌다. 역주행 중인 데뷔곡 '개화'로 주목받고 있는 루시도 '슈퍼밴드' 준우승자 출신이다. 황지영 기자



웨이브투어스

데이식스

Advertisement for Mocerri Chiropractic. Features a car accident illustration, a spine diagram, and a doctor's photo. Text includes: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Ellicott City Traffic Accident | Injury Specialist Hospital), '모커리 척추병원' (Mocerri Chiropractic),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Neck/Back Pain Specialist Hospital). Services listed: '사고후 서류 처리' (Accident document processing), '치료 전문 LMT마사지' (Specialized LMT massage), '각종 보험' (Various insurance). Contact info: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1980년대 이후 출생률**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1980년 2.82% 86만2835명

2000년 1.48 62만89명

2020년 0.837 27만2337명

2023년 0.72 22만9971명

**여름올림픽 한국 금메달 톱6 종목**

순위	종목	금	은	동	합계
1	양궁	27	9	7	43
2	태권도	12	3	7	22
3	유도	11	17	18	46
4	레슬링	11	11	14	36
5	사격	7	9	1	17
6	베드민턴	6	7	7	20

# “입신양명 시대는 지났다... 생활 속 스포츠가 출발점”

황선홍 감독이 이끈 올림픽 축구대표팀(23세 이하)의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는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은 단골 종목도, ‘메달밭’이라 불리던 여자 종목도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관광 부문 실무 총책임자로 활동 중인 장미란 차관은 현역 시절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2008년 베이징), 은(2004년 아테네), 동(2012년 런던)을 한 개씩 목에 걸었던 역도 레전드다. 급변하는 스포츠 환경에 따른 현장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차관 취임 이후 대한민국 스포츠를 뿌리부터 튼튼히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를 최근 만났다.

장 차관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

리기보다 눈앞에 닥친 현안부터 하나씩 해결하며 영역을 넓혀간다는 각오로 이 역할을 수락했다”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여러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차츰 시야를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자축구 탈락 과정을 지켜본 장 차관은 특히 “축구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큰데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해) 체육을 총괄하는 차관으로서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상황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축구를 포함해 대한민국 체육이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무대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건 스포츠에 참여하는 절대 인구가 급속도

**장미란 차관이 본 ‘한국 스포츠 위기’ 귀한 자식에 힘든 운동 안 시키려 해 초·중·고 엘리트 선수 감소세 심각 일상서 스포츠 접할 기회 늘리고 자연스럽게 선수 풀 확장해 나가기**



장미란 문화부 제2차관은 최근 중앙일보와 만나 “축구의 실패를 계기로 한국 체육이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기자

로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실제로 40년 전 2.82명이던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졌다. 장 차관은 “당장 초·중·고에서 엘리트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대부분의 부모는 하나 뿐인 자식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려 들지 않는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입신양명하던 시대도 한참 전에 지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스포츠를 접할 기회를 늘려 자연스럽게 선수 풀을 확장하는 것”이라면서 “소수 정예 엘리트에 집중하는 기존 선수 육성 방식의 장점을 계승하되, 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게 하고,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47.9%로 70대 이상(60.6%)의 참여율보다도 낮았다. 장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생에 대해 ‘즐거움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기존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합심해 과격적인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스포츠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용인대 교수 겸 한국체육학회 회장은 “학교 체육을 강화하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은 교육 과정의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어낼 호재”라면서 “올림픽 경쟁력 약화 현상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 미네소타, 서부 4강 PO 선착

122-116으로 피닉스에 4연승  
에드워즈 40점·타운스 28점

미국프로농구(NBA)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가장 먼저 콘퍼런스 4강 플레이오프(PO)에 진출했다.

미네소타는 28일 애리조나주 풋프린트 센터에서 열린 2023-2024 NBA 8강 플레이오프(7전 4승제) 4차전에서 피닉스 선스를 122-116으로 물리치고 시리즈를 4연승으로 끝냈다.

22세의 젊은 가드 앤서니 에드워즈가 40점, 칼 앤서니 타운스가 28점을 터

뜨려 팀 승리를 이끌었다. 피닉스는 데빈 부커가 49점, 케빈 듀랜트가 33점을 날으며 맞섰지만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이치지 않았다.

미네소타는 덴버 너기츠-LA 레이커스의 승자와 2라운드에서 격돌한다. 3쿼터까지 경기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던 미네소타는 4쿼터에 전세를 뒤집었다. 4점 차로 뒤지던 미네소타는 종료 8분 47초 전 마이크 콘리가 3점 슈트로 신호탄을 쐈고, 에드워즈의 점프 슈트

으로 100-99로 역전시켰다. 이후 타운스의 레이업, 에드워즈의 3점슛이 터지

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미네소타는 4분 32초를 남기고 107-107,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에드워즈와 제이든 맥다니얼스의 득점을 묶어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미네소타의 크리스 핀치 감독은 종료 직전 사이드라인에서 드리블하던 콘리와 충돌,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경기장을 떠나야 했다.

서부 콘퍼런스 LA 클리퍼스는 제임스 하든(33점)과 폴 조지(33점)가 66점을 합작한 데 힘입어 댈러스 매버릭스를 116-111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만들었다. 조지는 전반에만 26점을 퍼부어 커와이 레너드가 부상으로 빠

진 클리퍼스가 기선을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든은 4쿼터에 15점을 집중시켜 댈러스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댈러스는 카이리 어빙이 40점을 터뜨리고, 루카 돈치치가 29점·10리바운드·10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작성했지만 승리를 얻지 못했다.

동부 콘퍼런스 8강전에서는 뉴욕닉스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커스를 97-92로 물리치고, 3승 1패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 다가섰다. 또 다른 8강전에서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밀워키 벅스를 126-113으로 꺾고 역시 3승 1패로 앞서갔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승리를 이끈 가드 앤서니 에드워즈(오른쪽). [로이터/USA투데이스포츠]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 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어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 ~ 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젤™』 \$58 (100회회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이므로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쿼퀴한 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다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욕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슴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팔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통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말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쩡쩡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멋쟁이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날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반 연구적으로 사용) 말초처럼 가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했던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캡슐만 복용하면 1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영영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아랫도리가 분기명천하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여서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옹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반응**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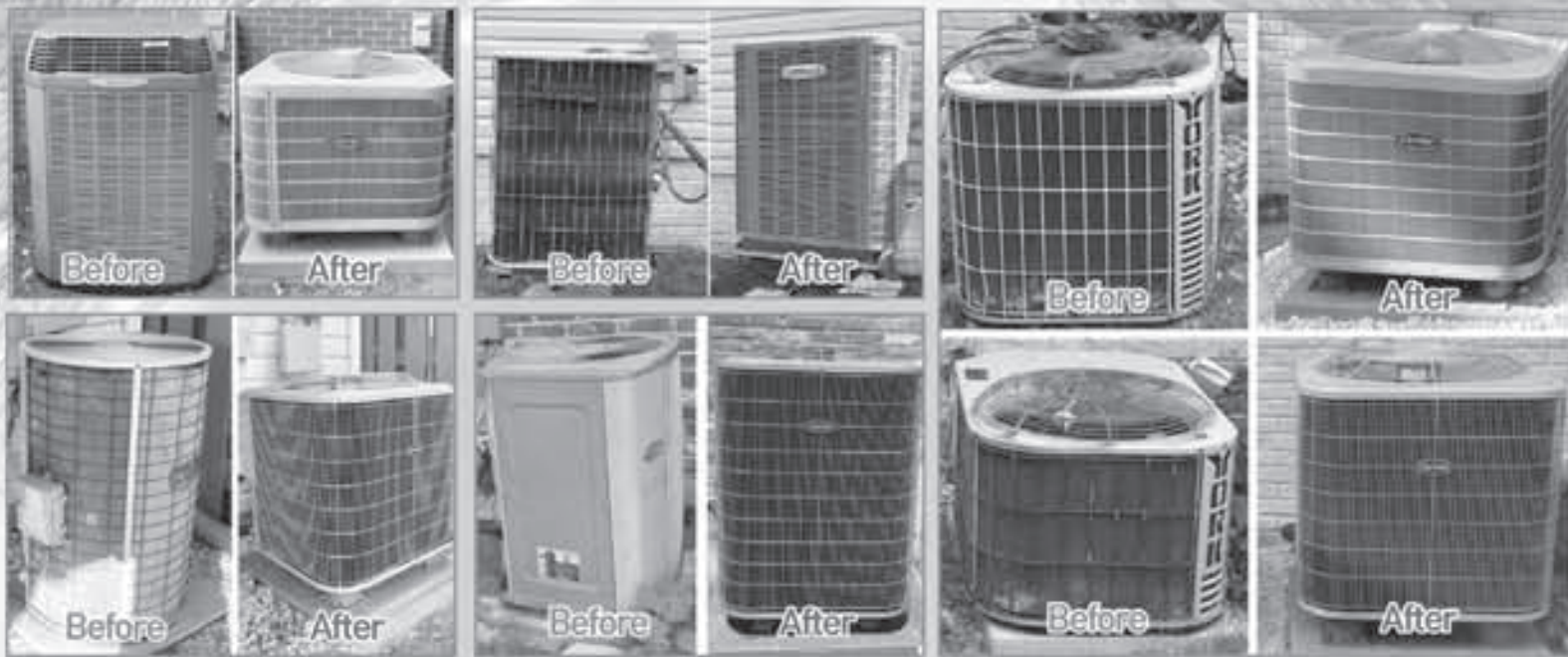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리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리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전기 공사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Golden Dew Jewelry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 용자

### 마이클 장

맞춤 용자의 길인  
질인과의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박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페인트  
◆목수◆전기◆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erry: What was that about?  
테리: 뭐 때문에 그래?  
Brent: I've been had.  
브렌트: 속았어.  
Terry: What are you talking about?  
테리: 무슨 소릴 하는 거야?  
Brent: Remember that good deal I got when I had my driveway paved?  
브렌트: 우리 집 차고 진입로 포장할 때 공사 조건

이 너무 좋았던 거 기억나?  
Terry: You should have known it was too good to be true.  
테리: 조건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야지.  
Brent: You're right. There are cracks everywhere in the driveway.  
브렌트: 맞아. 진입로 포장한 거 사방에 금이 갔어.  
Terry: Won't he guarantee his work?  
테리: 공사 보증 안 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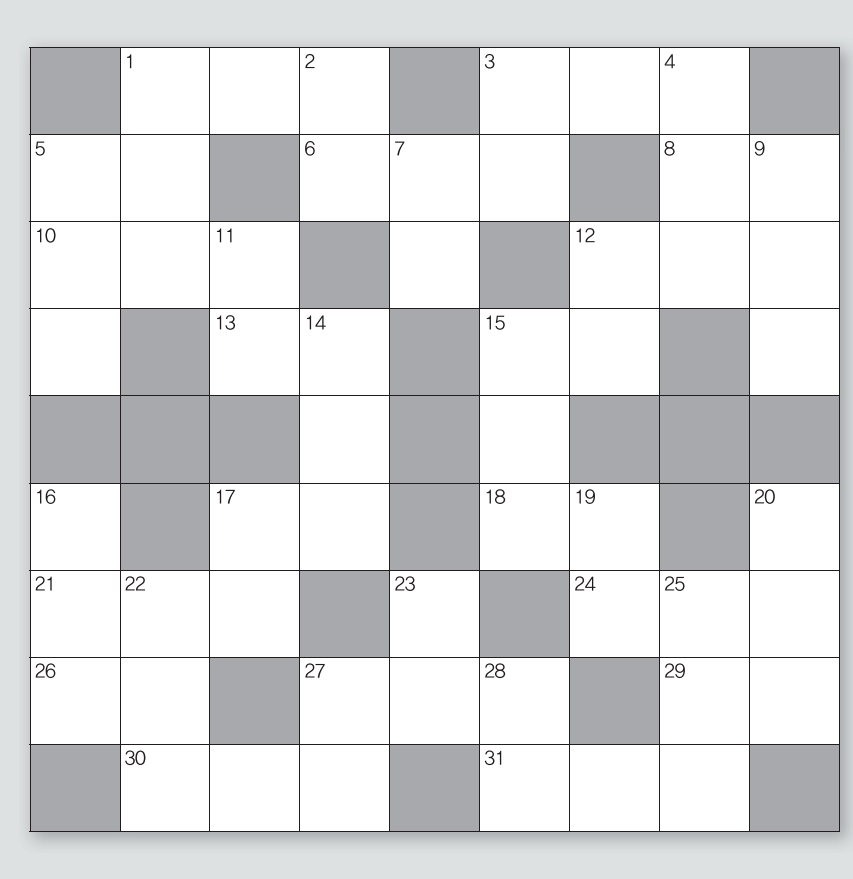
What 's your next move?; 이제 어떻게 할 거야?

(Brent slams his office telephone down as Terry walks in...)  
(테리가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브렌트가 전화 수화기를 내리친다...)

Brent: I don't know. I can't get in touch with him.  
브렌트: 모르겠어. 공사한 사람하고 연락이 안 돼.  
**기억할만한 표현**  
▶ to be had: 속다.  
"When they looked closely at their watches, they realized they had been had."  
(그들은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의심이 가는.  
"I should have known she was too good to be true."  
(그 여자 말야, 너무 괜찮아 보였는데 의심에 했어야 했어.)  
▶ get in touch with (someone): (누구에게) 연락하다.  
"He got in touch with me at the office yesterday."  
(그 사람이 어제 내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

날말퀴즈



가로열쇠

(1) 이를 닦고 물로 입안을 씻는 일 (3) 결혼식 때, 신부가 머리에 흰 천으로 된 것을 쓰조 (5)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 (6) 물체를 눈에 보이는 형상 그대로 그리는 그림. 사진학적 원리로 표현하는 완성 예상도 (8) 지붕 등이 경사진 정도. 구배. ~가 가파르다 (10)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12) 노란 꽃은 금잔 같고 하얀 꽃은 은잔대 같다는 데서 금잔옥대 꽃이라고도 하죠.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끝없는 고독의 위를 날으는 애달픈 마음(김동명/~) (13) 높게 잘 자란 큰 소나무 (15) 하루에 얼마씩으로 정하여 받는 보수 (17) 그해의 마지막 모임. 증권 거래소에서 실시하는, 1년 중의 마지막 입회 (18) 맹물에 폭 살아 익힌 음식 (21) 세금이나 관세가 면제된 상품 (24)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26)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 (27) 김치나 각두기를 담은 반찬 그릇 (29) 타자에게 투구를 하는 선수 (30) 보통 세 잎이지만 간혹 네 잎 달린 것도 있다. 클로버 (31) 풀이나 나무 따위를 엮거나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

세로열쇠

(1)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 냉마나 흰 종이 등 돈이 될 만한 것을 쥘 사람. 거지 (2)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 내림 (3) 수영을 낚음 (4) 물체가 반원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는 곡선 (5)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 (7) 발동이 걸리기 시작함. 자동차 ~이 걸리지 않는다 (9) 궁중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변기. □□틀 (11) 순환 계통의 중심적인 기관. 염통 (12)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야근 ~ (14) 연말에 한 해를 보내며 베푸는 모임 (15)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해냄. 매우 용감함 (16) 잠이 들게 하는 약 (17)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 줌 (19) 작은 어머니 (20)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 그 선수의 실력은 ~다 (22) 가늘고 고운 모래로 된 흙 (23) 큰길 가에서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앞에 이차가 와서 쉼니다 (25) 콩과 식물의 열매가 들어있는 껍질.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실마리. 말~ (27) 종이나 형질 따위의 거죽에 부풀어 일어나는 몹시 가는 털 (28) 밀이나 귀리 따위의 가루를 쳐내고 남은 속껍질. 사료로 쓰인다

스도쿠

7			6	9		4		
9				2	8			
5	6		4	7	1	9		3
	7	2	5	1	3		4	
	4					2	5	8
	9		2				1	
2		9		5				
1			7	4		8		5
4	5	7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9	1	6	3	8	7	5	4
5	6	8	2	4	7	9	3	1
4	3	7	9	5	1	6	8	2
7	1	3	4	8	2	5	6	9
8	5	2	7	9	6	1	4	3
6	4	9	3	1	5	2	7	8
3	2	6	1	7	4	8	9	5
9	7	5	8	2	3	4	1	6
1	8	4	5	6	9	3	2	7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Card Info)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한인최대 온라인 쇼핑몰** 건강, 식품,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반려동물 용품, 테마파크 티켓에서 각종 코로나 관련 상품까지

**HOT DEAL**

이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다.

LA KTown **213.368.2611**  
 한국제품이 참 많아서 좋아요~ Hotdeal.Koreadaily.com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 가\$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슈프 0명 \*스시 슈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길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674-7000**

**\$\$\$급한돈 융통/융자/재융자\$\$\$**

- ▶ 나쁜 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회사
- ▶ 다스카드 재사용 전문입니다.
-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방법 알려 드립니다.
- ▶ 사업체 운영/매매/폐업시 바로 융자 가능합니다.
- ▶ 빚 때문에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을 위한 특별상담
- ▶ 역이민 고려하시면 현금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공기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율활유 젤

**1-213-210-9720, 전화,보이스톡,카톡,텍스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마 살매** Up to 40% 할인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가력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삼삼음육단 도안역사당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행복한 사연 꼭 보세요** 이메일: YP518119@gmail.com Tel. 714-733-3206 "카톡, 텍스트 메시지, 전화는 삼가합니다 Dr 박"

돈은 은행에 있다고 사업이 아니지요. 보관과 예금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관되고 있는 동안 유이트 메디칼 그룹 병원 닥터 박입니다. 본인일도하고 당신 돕고 하는 저의 계획은 10만불 2500불, 20만 5000불을 매달 드릴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없이 은행에 돈이 있고 1원도 남에게 주지않고 추라스트 구좌로서 은행에 보관하며 당신이 언제든지 찾아갈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법으로 단단히 지켜줍니다. 한국에서도 ok 특히나 유학생및 노인은 자기돈 은행에 잘 보관하고 저가 돕는 돈으로 공짜로 몇배 행복한 생활하시면서 살다가 원금을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자식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데 받는것 좋으나 부모를 돌본다는것 그들은 가난해요 효도 없어요. 또한 10만불로 사업하세요. 돈은 가지고 있고 매달 2500불 행은입니다 **1밀리언 되면 10명 되면 접겠습니다. 서로 이런일이 진행되면 집과 돈도도우려 합니다. 모두 모이면 40일후 매달 저의 구좌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10만 예금 시 \$2,500 매년 \$2.5만    \$20만 예금 시 \$5,000 매년 \$5만    \$1밀리언 예금 시 \$25,000 매년 \$25만**

보통 은행 예금처럼 아무때나 원금 찾아가면 됨(계약 없음) 주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임 학생, 노인등등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준비된 자에게 돕는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자에게는 행복을 나눌 수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며, 사기도 아니고 마음 믿어준것이 감사합니다 이 계획은 기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가정이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MD의사입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더 나은 생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행복을 주교자 합니다.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